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2009 12.23
No.42(통권 143호)

코펜하겐의 녹색 한국

"나부터 행동을"

중점 기획 따뜻한 미소금융, 서민 곁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우리는 할 수 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누적된 온실가스가 인류의 앞날을 위협하는 암운(暗雲)으로 몰려오고 있다. 지난 1백 년 동안 지구 온도가 섭씨 0.74도 높아진 것도 심상치 않은데, 한반도는 그 배가 넘는 1.7도나 올랐다.

지난 11월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최대 권고치인 30퍼센트 온실가스 감축을 공표했다. 1백 년간 온실가스 누적배출 세계 22위, 온실가스의 주종인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2007년 기준)를 기록한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결단'이었다. 이러한 결단은 한반도의 이상기후 대처는 물론 이상기후로 빈발하는 전 지구적 재앙을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일조하려는 거보(巨步)라 하겠다.

1992년 세계 각국이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확인한 후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 의무감축국 약 40개국이 2008~2012년 사이 1990년 대비 약 5퍼센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할 때만 해도 우리는 '구름 잡는 생소리', 곧 공허한 엄살로 치부했다. 산업 고도화에 골몰하던 우리에게 온실가스 감축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였다.

그랬던 우리가 사태가 심상찮음을 깨달은 것은 2007년 세계 각국이 '발리 행동계획'을 통해 교토의정서 시한인 2012년 이후 대책을 궁리할 즈음이었다. 이 회의에서 올해 12월 7일부터 코펜하겐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 개최를 결의했다.

당사국총회를 결의한 주요 목적은 교토의정서를 부정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신생 공업국의 참여를 유도하려 함이었다. 그때 자칫 의무감축국에 포함돼 급격한 환경규제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우리 정부는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국가적정감축행동(NAMA) 등록부'라는, 의무감축국과 비(非)의무감축국 틈새의 '제3의 길'을 열어 놓는 데 성공한다.

이 연장선에서 2008년 7월 도야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비의무감축국 가운데 한국이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감축 조치가 국가적 부담임을 모르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같은 밝기를 유지하지만 전기 소모량은 10퍼센트에 불과한 LED등으로 조명등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무척 많이 든다.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성장률까지 주름지게 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한다. 저탄소, 곧 탄소를 저감하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축적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거기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고, 이를 산업화하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우리보다 앞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선진국조차 '저탄소정책'에만 급급하는 사이 우리는 온실가스 먹구름의 '해악(Vice)'은 줄이고 성장의 '덕업(Virtue)'은 계속 탄력을 받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점을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도출한 감축 목표치를 놓고 그 사이 국내에서는 공방이 많았다. 산업계는 국민경제에 주름이 간다며 낮춰야 한다, 반대로 환경단체에서는 지구를 살리자면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IPCC 최대 권고치를 탄소감축 목표로 확정한 것은, 대통령이 단언했듯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는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음이 세상살이의 지혜"라 믿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먹구름을 줄이겠다"는 우리의 결단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회의에서 세계 열강들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다. 인류 생존에도 기여할 미래지향적 국정 과제에 이제 우리 국민이 녹색생활을 통해 적극 호응하고 참여해줄 차례다. 통일 이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탁자에 오른 생수는 어김없이 페트병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에 담겨 있다. 온실가스라는 먹구름, 그 구름도 잡을 수 있다는 독일 국민의 의지 표출인듯 싶다. 우리라고 못 할 리 있겠는가.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2.23_No.42(통권 143호)

16

기획특집

지속가능한 지구
어떻게 지킬 것인가

12월 7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지구인의 시선은
온난화의 공포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구 운명의
향방을 두고 중대 결정이 내려지는 코펜하겐으로 쏠렸다.
한국은 이곳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할 것과
차기 당사국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모든 지구인의 시급한 의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을 실어온
한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16 **총론**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지구를 살리자"

18 이명박 대통령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하겠다"

20 **해외 언론** | '한국 온실가스 30% 감축'에 주목

21 **현장** |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서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22 기후변화 대응 열혈청년 5인 코펜하겐에 가다

24 녹색성장 일자리 147만 개 창출

26 녹색 호랑이, 그린 IT로 뛴다

28 기업 자발적 참여토록… 오염 줄이면 인센티브

30 환경규제 선진국형으로 바꾼다

32 알쏭달쏭 환경용어 완전 정복

표지 설명 소중한 지구를 지켜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코펜하겐에서 갖가지 지구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류가 대대로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미래의 유산, 초록빛 생명의 별 지구를 지속가능한 보금자리로 지켜내야 할 때다.

01 **Reader & Leader** |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04 **공감 라운지** | '녹색성장 정책 아이디어' 공모
08 **포커스** | 서민·고용 분야 내년 계획 "일자리 만들자"
10 경제·생활 분야 내년 계획 "서민생활 안정"
12 **인터뷰** |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대한민국 바다, 물샐틈없이 지키겠습니다"

중점기획 따뜻한 미소금융, 서민 곁으로

34 **총론** |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본격 출범
36 10년간 2조2055억·25만명에 혜택
38 자격 요건 확인 필수·대출까지 1개월 이상 걸려

48

40 **녹색 생활** | 송파구 "하이브리드 자전거로 출퇴근하세요"
42 **녹색 탐방 ②** | 건국대 '스쿨오브綠'
"에코 캠퍼스 세계에 알립니다"
44 **인터뷰** | 친환경 운전 홍보대사 이세창
"친환경 카레이서? 차를 사랑하는 거죠"
46 **인터뷰** | 아시아야구연맹 회장 선출된 강승규 의원
"야구 올림픽 채택 위해 힘쓸 것"
47 **위클리 코믹스** | 4대강 살리기 ㉟
48 **스포츠 인사이드** | 그라운드 달군 그때 그 야구 스타들
50 **이 사람** | 방과후 수업으로 '하나高' 합격한 문정선 양
51 **공감 카툰** | 파랑새를 찾아서
52 **미리 보는 KTV** | 〈천년의 침묵, 고려의 귀환〉
54 **알아두세요** |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55 **생활정보** | 국립서울과학관 "이번 방학엔 과학으로 놀자"
56 **알아두세요** | 서초구청 '예비 할머니 교실' 인기
58 **걷고 싶은 길** | 담양 죽록원~메타세쿼이아 길
62 **이한우 기자의 역사 읽기** | 조선의 공직자들 ⑪ 〈끝〉
63 **書로 공감** | 〈블라인드 47〉
64 **컬처 36.5** | 〈Thank you 4 the Music 2nd〉

18

58

Weekly 공감

발행일 2009.12.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봉사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엽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 가동 일자리 20만 개 늘린다

●● 〈Weekly 공감〉 41호(12월 16일자) 기획특집 '봉사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공감의 댓글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고속 경제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국민소득도 높아졌지만 아직 빈부격차는 극복하지 못해 우리 사회에는 불우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계층이 많다. 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실감나게 하는 기사였다. 이들도 우리 부모요 형제들이기에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들 각자의 조그만 배려와 도움이 그들에게는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다. 불우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_ 최명연

"예부터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우리 민족 전통의 상부상조 정신이 있었기에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잘 일깨워준 기사였다."_ 유은경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적절한 기획기사였다. 우리나라에 자원봉사자가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자원봉사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됐다. 홀몸어르신들을 돕는 민간식당 기사도 감동적이었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소개한 것도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 연탄 나르는 봉사활동에 어린이들이 참가한 것도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본다."_ 박준석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모처럼 훈훈한 소식에 기분이 좋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사회봉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사회봉사를 개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봉사자들과 봉사가 필요한 이들을 연계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_ 이인화

●● 〈Weekly 공감〉 41호 '국가고용전략회의 가동, 일자리 20만 개 늘린다' 기사를 읽고 독자들이 보내온 댓글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늘리기다. 따라서 내년의 최대 국정 과제도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에 맞춰야 한다"_ 유원동

"우수 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반가웠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책연구사업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_ 한은정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40호(12월 9일자) 14쪽 사진 설명 중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의 오기(誤記)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알립니다

1 2010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의 애국의식을 고취하고 항일운동에 몸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10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발표했다.

1월 **방한민** 선생 · 언론 · 교육투쟁에 앞장
2월 **김상덕** 선생 · 도쿄 2 · 8독립선언에 참여
3월 **차희식** 선생 · 화성 3 · 1만세운동 선봉에서 투쟁
4월 **염온동** 선생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견 간부로 군사활동 지원에 헌신
5월 **오광심** 여사 · 한국광복군 제3지대 간부로 광복군 모집활동 및 여성 참여를 독려
6월 **김익상** 선생 · 의열단원으로 조선총독 처단을 위해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
7월 **이광민** 선생 · 정의부 대표로 만주 독립운동 통합에 앞장
8월 **이중언** 선생 · 경술국치 후 망국의 한을 품고 단식 순절
9월 **권　준** 선생 · 정통무장으로 항일전의 선봉에 섬
10월 **최현배** 선생 · 민족혼을 일깨우고자 한글 연구에 일생을 바침
11월 **심남일** 선생 · 호남벌을 호령한 의병장
12월 **백일규** 선생 · 미주지역 항일언론의 중심인물

2 '녹색성장 정책 아이디어' 공모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 자원 고갈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선진 녹색강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주 제 환경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분 야 ①기후변화 대응 ②녹색생활 혁명 ③환경기술 · 산업 육성
일 정 2010년 1월 8일 마감, 2월 8일 발표,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자 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단체도 가능)
방 법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공모 양식을 내려받은 후 응모 내용을 작성해 e메일로 제출(youda1004@korea.kr)
※제안 배경, 제안 내용, 기대효과 등을 양식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되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참고자료 첨부 가능
시 상 **최우수상**(1편 · 상금 2백만원) **우수상**(2편 · 상금 1백만원) **장려상**(5편 · 상금 50만원)
문 의 환경부 정책총괄과 (02-2110-6673)

공감 ♥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30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40호(12월 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도약대 **6** 수표 **7** 유치 **9** 이미지 **10** 전도사
세로 **1** 태권도 **2** 평화유지군 **4** 약수 **5** 대표이사 **8** 파전

〈Weekly 공감〉 40호 '공감 퍼즐' 당첨자

박서영(전남 곡성군 곡성읍)
박현재(부산 강서구 대저동)
장희지(대구 북구 고성동)
정인선(충북 청원군 미원면)
정혜경(서울 종로구 명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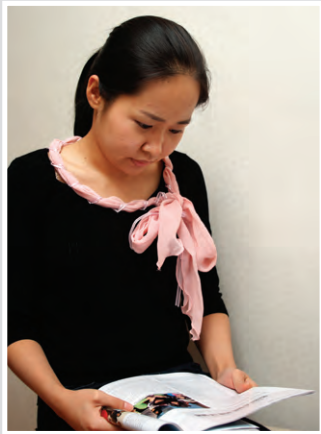
가 로

1. 대한민국~!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섭니다.
3.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최근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5.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름과 새와 바람과 별과 달과….
6. 넓적한 마름모 모양의 몸체와 긴 꼬리를 가진 바닷물고기를 닮게 만든 연.
9.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이 있습니다.

세 로

1. 덴마크의 수도. "OOOO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다 함께 행동을'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2. 어린 젖먹이 아이.
4.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지하매장 자원을 이용하는 연료. 화석에너지라고도 하죠.
7.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 'Ω, ω'로 쓰죠.
8. 동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 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홍양희(30) 씨는 "근무시간엔 은행의 보안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지만 퇴근 후엔 요리가 취미인 '홈메이드맘' 으로 변신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 〈Weekly 공감〉을 보게 된 계기는.

올해 4월 재취업을 하면서 〈Weekly 공감〉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얄팍한 주간지라 별 내용이 있겠어?' 싶었는데 읽을거리가 은근히 많아 애독자가 됐어요. 이젠 다른 직원들이 먼저 제게 〈Weekly 공감〉을 챙겨줄 정도예요.

● 〈Weekly 공감〉의 매력이라면.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아도 〈Weekly 공감〉만 잘 챙겨본다면 사회, 문화 분야 등의 정부 정책에 관해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뉴스나 신문에서 같은 주제의 기사들을 봐도 〈Weekly 공감〉에서처럼 알차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비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여러 차례 특집으로 실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지만 반대 목소리는 거의 볼 수가 없더군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쟁점이나 비판도 실어서 독자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Weekly 공감〉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실어주세요. 기사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종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다뤄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고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우향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 그동안 사교육의 주범 노릇을 해왔던 특목고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접하고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느꼈다. 사실상 우수한 두뇌들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특목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교육과정을 편법적, 파행적으로 운영하며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교로 전락시켜왔음에 비추어 대수술을 해야 함을 실감했다.
2. 성적과 입시 위주 교육에 찌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며 때로는 희생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식교육과 더불어 인성·인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리라 본다.
3.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방학을 보내는 방안에 대한 기사가 실린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최예진 경북 상주시 남성동

1. 연말정산 재테크 기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 할 때면 머리가 아팠는데 이해가 쉽도록 해주셔서 올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간소화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달라진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점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복사해서 직원들에게 돌려야겠어요.
2. 이번 기획특집은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컸답니다. 사회는 혼자만 잘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기부문화뿐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 나누는 것들이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사회봉사활동이 일상생활처럼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미래의 제1순위 남편감은 이렇게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장담합니다.
3. 나눔을 잘 실천하는 기업인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3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한국, 저탄소 녹색 강국으로 우뚝 서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www.egov.go.kr 한글검색창에 전자민원 검색 입력하시고 이용하세요~

민원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OK!

전자민원 홍보대사 뽀롱뽀롱 뽀로로 © ICONIX/OCON/EBS/SKbroadband

인터넷 무료발급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

전입신고, 인터넷 서비스 실시

이사 후 언제나 집에서도
인터넷 전입신고 OK!

식품영업신고,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인터넷 서비스 개시 예정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민·고용 분야 내년 계획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 과제

내년에도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는 민생과 일자리 창출이다. 12월 14일 열린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 보훈처 합동으로 이뤄진 '서민·고용 분야 합동보고회'를 시작으로 2010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첫 번째 열린 합동 보고회의 부처별 주요 민생,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폈다.

올해 정부의 화두는 '서민'을 따뜻하게 만들고 '민생'을 더 살기 좋게 하는 것이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민들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민·고용 분야 '2010년 합동보고회'는 정부의 이런 의지를 더욱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 씨 등 46명의 정책 수요자도 참석해 정부 부처가 내년 업무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함께한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됐다. 이는 서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배려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각 부처에서 고민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청년, 여성, 고령자, 저소득층 등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각 계층을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가족부 | 복지 서비스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요 핵심 과제 5가지를 발표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의 방안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먼저 서민들의 부담이 큰 간병 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를 통해 1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내년부터 간병 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에는 본격적으로 급여 대상에 넣어 간병인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요양보호사 등 이쪽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최대 6만5천명까지 늘리고 돌봄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분야 1만 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1만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산업 관련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 및 산업지원 등을 통해 2만 개 안팎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부 | 퍼플잡 확대…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 시범 실시

여성부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여성정책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여성부는 여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Purple Job)를 도입한다. 내년 초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이후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해 공공 부문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제공한다. 육아나 가사로 직장 생활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4만6천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부인턴 4천6백명을 뽑아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녹색 일자리, 유망 직종 등 직업훈련을 2백30개 과정으로 다양화해 매년 5천8백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동·여성폭력 사건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 제

도를 활성화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주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살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주여성 자활시설'을 설치하며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 |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대책 총력

노동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노동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국민의 피부에 먼저 와 닿을 정책이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대책'이다.

이 지원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전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 일자리에 대한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워크넷(work.go.kr)에 대학·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과 우수 중소기업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강화한다. 전국 대학 1백50곳에 기업의 인사·노무 경력자를 중심으로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취업을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대상을 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취업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근로 빈곤층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9년 안에 1955~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7백12만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업무 경험이 많은 이들이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 개 육성을 목표로 기존 재정 지원 일자리 중 수익성 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사(社) 1사회적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위한 지원 강화

국가보훈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보훈'이란 주제 아래 국가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삶 보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2010년은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들의 10년 주기가 집중 도래되는 해다.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경술국치 1백 년, 청산리대첩 90주년을 비롯해 6·25전쟁이 6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6·25전쟁 60년 기념사업을 벌여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다.

보훈 대상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보상금 지급단가를 5퍼센트 인상하고 보금자리주택의 특별배정 물량을 확보하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해주는 등 주택, 대출, 교육 등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11년 개원하는 보훈중앙병원을 보훈 대상자의 질환에 맞게 특성화하는 세부 운영계획을 내년 7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동아DB

12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2010년 서민 · 고용 분야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경제·생활 분야 내년 계획

재정 확대하고 상반기에 60% 집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부처의 2010년 사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이다. 영세상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조영철 기자

2010년에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 범위가 확대되고 펀드 관련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회복기금 보증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가맹계약서가 도입되고, 납골당과 홈쇼핑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렸다.

이번 합동 발표회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 직장인, 학생, 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3개 부처별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보고에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 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을 했으나 기업투자가 저조하고 고용이 부진해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 제고'를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의 3대 목표로 삼아 내년에도 재정을 확대하는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주요 사업비의 60퍼센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물품 구매, 공사 계약과 같은 조달사업의 경우 70퍼센트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3조 5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2012년까지 조성해 창업, 정보기술(IT), 녹색, 신성장 등 '미래 먹을거리'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1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여성가장과 청년실업자가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면 가산점이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 공

급은 당초 14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확대하며,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7천 6백2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또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위기관리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침 12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외국의 14개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해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도 15개월 만인 내년 2월 1일로 끝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전 세계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에서도 외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대상이 기존의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권한 강화와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퍼센트를 담합 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분실상품 추가 납품 강요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계획 제출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허위·과장 정보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 내년부터 공정한 가맹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게 되며 외식업의 경우 기존 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제과점)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최근 인터넷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구매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 서민 금융지원 강화·펀드 수수료 2%로 낮춰

내년 금융위원회의 사업은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을 통해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보증기관 등을 통해 모두 94조원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만기 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 비율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격 투자자제도(QIB)를 도입해 증권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녹색금융 지원은 2009년의 4조3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게 된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외환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를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활동내역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은행권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고 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대상이 기존의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고, 펀드 수수료가 인하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많고 펀드로 재테크를 하는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연 5퍼센트였던 기존의 펀드판매 보수와 펀드판매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각각 1퍼센트와 2퍼센트로 줄어든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허위·과장광고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내년에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

바다 지킴이 56주년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어민 보호 · 독도 수호 물샐틈없이 지키겠습니다"

3백65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바다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해양경찰이다. 1953년 해군 폐선 6척으로 시작해 현재 2백78척까지 늘리며 바다 지킴이로 우뚝 선 해경의 굳건한 바다 사랑을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에게 들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영토가 국토의 4.5배에 달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도 바다로 접해 있어 바다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수호자로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은 그래서 그 임무가 막중하다.

올해 3월 부임한 이길범(55)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을 좀 더 국민 곁에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경의 위상을 드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을 만나 올해로 창설 56주년이 된 해양경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영철 기자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1953년 해군의 폐선 6척으로 시작됐지만 현재 2백78척의 함선과 헬기 15대 등을 보유할 만큼 전력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해상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한 해 동안 역점을 두고 해왔던 해상치안 서비스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치안질서 유지, 경비함정을 이용한 구난 업무, 깨끗한 바다 보존을 위한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조업어선 보호, 독도 · 이어도 해양주권 수호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도 우리 측 어민 보호와 해상경비 태세 강화를 위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엄정한 해상 공권력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임무 수행과 새로운 장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변국들과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광활한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상 치안행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양경찰은 1953년 해군의 폐선 6척으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2백78척의 함선과 고정 항공기 2대, 헬기 15대를 보유할 만큼 전력을 보강해왔습니다. 여기에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하면 대형함정과 항공기 같은 광역 경비전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해양 오염사고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첨단장비와 시스템 보강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위상과 역량을 갖춘 해양 치안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먼저 해상 경비와 오염 방제 역량 강화, 국제 해상교통로 치안 회복, 레저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연 · 근해 꽃게 조업시기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큰 문제로 대두돼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중국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

소되면서 협정 전보다 불법조업이 9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우리나라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2백~3백여 척,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는 수천 척이 무리지어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EEZ 해역에 대한 항공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 초계기와 헬기 2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중국 어선 집중 조업해역에 대형함정을 배치하는 등 감시·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2008년도에는 총 4백32척, 올해 현재까지는 3백69척의 중국 어선을 검거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경 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저탄소 녹색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해양경찰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방향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경비 함정인 그린십(Green Ship)을 만들었습니다. 그린십은 배가 저속으로 운항할 때는 전기모터를, 고속으로 운항할 때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의 도입으로 함정당 약 18억원의 유류비 절약과 약 2백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린십이 3천 톤급 1척뿐이지만 앞으로 만들 함정은 그린십으로 건조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총수로서 독도 정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부는 독도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외교부 산하 '독도 태스크포스',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를 설치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영토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독도 해상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5천 톤급 경비함 삼봉호를 비롯한 대형함정을 3백65일 상시 배치해 독도 및 해양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 중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독도주변 해역인 만큼 해양경찰과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독도 우발사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체계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전개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소외계층 지원활동이 궁금합니다.

도서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각 소속기관이 위치한 지역별로 어촌 영세어민에 대한 일일 봉사활동 겸 현장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인천 자월면 섬마을인 승봉도를 찾아 연탄배달 봉사를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제56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면서 11월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국 릴레이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지난 10월 말 이길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들은 소외받는 도서지역을 돕기 위해 인천 자월면 섬마을인 승봉도를 찾아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이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조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재양성에 초점을 둔 인사운영과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되는 시스템화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칙을 준수하고 끊임없이 현장을 보살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겨 온정과 활력이 넘치는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바다에서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122

바다에서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112나 119가 아닌 '122'를 누른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22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접수되며 24시간 대기 중인 함정이나 헬기, 122 해양경찰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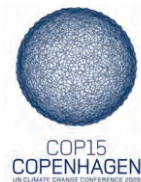
기획특집

"얼마나 줄이느냐 어떻게 줄이느냐"

극심한 가뭄에 말라 죽은 아프리카의 기린과
얼음이 녹으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북극곰의 이야기는
미래에서 보낸 불길한 전령인지 모른다.
12월 7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지구인의 시선은
지구 운명의 향방을 두고
중대 결정이 내려지는 코펜하겐으로 쏠렸다.
한국은 이곳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 설립과
차기 당사국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을 실어온
한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1. 단 한 통의 용해제가 수백만 리터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옥외광고. 스페인 콘트라푼토.
2, 5 캘리포니아 해변 청소 홍보용 광고 '담배 해오라기'와 '스푼 게'. 미국 굿바이 실버스타인&파트너스.
3.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작품으로 2009년 ACT Responsible 공익광고. 미국 PIMC.
4. 배수구의 유해물질 방출을 경고하는 옥외광고. 스페인 콘트라푼토.

– 사진 제공 · 칸 국제광고제 한국사무국, ACT Responsible

연합

지구를 살리자 기후위기 현재 시각 10:37 P.M.

전장(戰場)이었다.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개최된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터였다. 다가오는 온난화의 재앙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비정부기구(NGO)도, 세계의 누리꾼들까지도 코펜하겐에 모였다.

"이 시간, 이 장소는 우리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This time, this place is our great hope. _호주의 샘 N.

"제발 노력해주세요. 우리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Please make an effort. We need results. _덴마크의 비욘 아르비드센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폐기물 감소란 이슈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그들의 고통에 대해 우리를 탓하지 않게 합시다"
It's time to think over the issue of reduction of emissions by all of us. Let our future generations not blame us for their sufferings. _인도의 B. 비나이 간디.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기후협상을 위한 데드라인'이기도 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Parties)가 12월 7~18일 덴마크에서 개최됐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최 측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세계 각국 누리꾼들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기후회담 카드 1만4천여 장이 쌓였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 회의장 주변은 세계 각지에서 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수만명이 운집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의 빠른 타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폐회를 이틀 앞둔 12월 16일 주요 이슈가 해결되지 않자 시위대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외치며 회의장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왜 이렇게 긴박한 문제가 됐는가. 지난 1백 년간(1906~2005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0.74도 상승했으며, 최근 상승에 가속도가 더 붙고 있다. 주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서 기인한 지구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 상승을 가져왔으며 전 지구적인 사막화와 생태계 파괴, 홍수와 가뭄 등 갖가지 이상기후 폐해를 일으켰다. 이미 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인도양의 몰디브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세계 각국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했으며 이 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 기구로,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 결정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코펜하겐까지 모두 15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빙하는 녹고 사막은 늘고… 기후회담 중요성 대두

이번 코펜하겐 총회는 2007년 12월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채택으로 출범한 '2012년 이후(Post-2012) 기후변화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상 완료를 주요 목표로 했으며, 중기(2020년)와 장기(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도 주요 사안이었다.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는 당면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덴마크 정부 집계에 따르면 1백19명의 세계 정상이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1백19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9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82퍼센트가 살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에 86퍼센트의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다. 또 이들 1백19개국은 세계 20위까지의 경제대국과 15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코펜하겐 총회 기간 동안 회의장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는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과 환경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치열한 홍보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열대우림 보존 개도국에 지원 합의… "시간이 없다" 결단 촉구

이곳 부스에서 한국의 저탄소 노력을 홍보하고 돌아온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 김판조(31) 씨는 "각국 NGO 관계자들이 우리 부스에도 다녀가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며 "원래 총회 참석 인원이 1만5천명이었으나 둘째 주에는 4만명 이상 몰릴 만큼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세계 1,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는 문제가 '핫이슈'였다.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경제성장률과 연동하려는 시도와 국제사회의 감시 움직임에 반발했고, 미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세계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외면했다. 이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의 성패를 좌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각국에 결단을 촉구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도 첨예했다. 중국과 인도 등 1백35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지 않을 경우 총회 마지막 날의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12월 16일 열대우림(Rainforests) 보존 개도국에 대한 보상에 가장 먼저 의견일치를 보았다. 미국과 호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영국이 향후 3년간 산림 벌채를 제한하는 개도국에 대해 35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산림 벌채는 온실가스 발생의 2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NGO 단체인 환경재단은 12월 14일 코펜하겐에서 "올해의 '세계 기후위기 시계'가 10시 37분을 가리키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기후위기 시계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 식량 등 6개 요소를 종합해 시간으로 환산한 지표다. 산림 벌채를 막기 위한 선진국들의 합의가 시발점이 된다면 기후위기 시계는 지금부터라도 거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Seal the Deal' 당신의 관심이 지구를 살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당신의 서명으로 살리는 지구, Seal the Deal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펼쳤다. 우리나라에서는 반 총장과 배우 배용준 씨가 함께 참가한 이 캠페인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온실가스 감축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후청원서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을 받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취합한 전 세계인의 서명이 담긴 기후청원서는 코펜하겐에서 각국 대표들에게 전달됐다.

연합

12월 7~18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면서 회의장 안팎은 열기로 뜨거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찰스 영국 황태자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코펜하겐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17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정상들에게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코펜하겐 기조연설… 유일하게 '앙코르 연설'도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하겠다"

지구를 온난화 위기에서 구할 '마지막 기회'로까지 평가받은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부터(Me First)' 정신을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이 커다란 제안들을 내놓았다. 2012년 당사국총회 한국 유치와 기후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온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12월 17일 '함께 행동하기(Taking Action Together)'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 문제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부터 앞장설 때 전 세계적인 긍정적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Me First' 정신에 근거해 개발도상국의 투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도입을 주장하고 한국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사실을 소개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개념인 비의무감축국가(Non-Annex I)를 대상으로 하는 '나마 레지스트리' 제도는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기후 위기 해결할 새로운 국제기구와 차기 총회 유치 제안

새롭게 온실가스 규제를 받게 될 개도국들은 반대한 반면 선진국들은 찬성한 가운데 비의무감축국가인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7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은 연설에서 한국의 이러한 자발적인 선택에 대해 '얼리 무버(Early Mover)'로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한국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1차 감축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인 'Post-2012'에 대한 새로운 기후체계(New Climate Order)의 성격과 구체적 이행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돼 역사적 의미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협약사무국의 협의·조정을 거쳐 당사국 간 합의(Consensus)로 결정되며, 제18차 회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최할 차례로 현재까지 한국 외에 카타르가 신청한 상태다. 한국은 대통령 연설에 앞서 12월 9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아시아그룹 국가회의에서도 유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카타르도 12월 14일 유치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노력과 관련, 코펜하겐에서 활동 중인 정부대표단은 "의장국인 덴마크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관심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유치국 선정은 2010년 말 열릴 예정인 제16차 당사국총회(멕시코)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로 인력 네트워크 구성 제안

더불어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How much)' 하는 문제 못지않게 '어떻게 줄이느냐(How to)'에 대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며 'How to'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노력의 하나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상반기 중 설립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 및 경제성장 분야 석학과 전문가,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연구소를 녹색성장 방법론(Green Growth Plan)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한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와 기후변화 관련 기관 등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미 기후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영국의 니콜러스 스턴 경과 미국의 토머스 헬러 스탠퍼드대 교수, 할 하비 클라이메이트워크스재단 대표와 안드레아 머클(프로젝트 카탈리스트 디렉터), 에릭 바인호커(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시니어펠로) 같은 전문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학, 국제기구, 연구소,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녹색성장 분야 인재를 적극 영입하거나 활발하게 교류해 녹색성장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녹색성장 방법론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상반기 중 한국 내 본부를 설립하고, 2012년까지 향후 3년 내 선진국과 개도국에 5개 안팎의 지부를 유치할 것을 계획 중이며 세부적인 조직 구성과 설립 계획은 2010년 상반기에 공표된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한 다음 날인 12월 18일 코펜하겐 벨라센터 회의장 단상에 다시 올라 당초 계획에 없던 '앙코르 연설'을 했다. 이 '앙코르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 두 번 연설한 경우는 이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였다.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발언은 결코 구호에 그치는 말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도 당면과제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긴장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은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 목표(8퍼센트 감축)를 이미 달성했다. 1990년 이후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로 급증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퍼센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단과 변화가 필요하다. "'얼마나 줄이느냐(How much)' 하는 문제 못지않게 '어떻게 줄이느냐(How to)'에 대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말이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회의장에만 울릴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반향을 일으켜야 할 때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코펜하겐에서 한 시위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원하며 손 모양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외 언론 '한국 온실가스 30% 감축'에 주목

"대한민국에 더 큰 이익 가져올 것"

'한국이 부국과 빈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12월 15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 같은 헤드라인을 뽑고,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先) 제안함으로써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견을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식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앞서 11월 17일 한국은 비(非)의무감축국가, 즉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없는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주어진 경제상황에서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대비 30퍼센트 감축안'을 발표해 선도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는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에 대해 감축 목표치 설정의 좋은 선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38개 의무감축국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선발 개도국으로서 자발적 행동을 보이기 위해 비의무감축국가임에도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퍼센트 줄이겠다고 11월 17일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기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2050년 장기 감축 목표는 선언적 목표인 데 비해 우리나라가 설정한 2020년 중기 목표는 실천적 목표라는 중요성을 띤다"고 강조했다.

김형국 녹색위 위원장은 "당초 감축 목표치 3개 안(21퍼센트, 27퍼센트, 30퍼센트) 중에서 최근의 국제적인 감축 경향과 국민 여론, 산업계의 부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가장 선호도가 높은 30퍼센트 감축안을 채택해 정부의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즉각 해외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1월 17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코펜하겐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실 기획단장의 말을 인용, "녹색 기술에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가 투자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1월 17일자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단기적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BBC〉(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등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11월 18일자에서 감축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싣기도 했다. "한국 산업계에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한국 제조업체들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세우고 있는 탄소 관련 무역장벽을 피할 수 있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예측도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20일자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및 교통에 투자하고 신규 녹색산업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 패턴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의 〈BBC〉는 11월 17일 뉴스를 통해 "한국의 자발적 감축 계획 발표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삼아 참가국들에게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다. G 글·최은숙 기자

"4대강 살리기는 자연과 함께 사는 도전"

심명필 본부장 코펜하겐 인터뷰

코펜하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전도 펼쳐졌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녹색 도전'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문 브로슈어와 DVD 등을 배포했다.

12월 15일(현지시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벨라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국 정부의 핵심적인 녹색성장 정책임을 소개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 정부가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창의적인 녹색 도전"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선진적인 물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저탄소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클린 정보기술(IT) 접목과 태양광,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수효과로 수질 개선과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1천7백2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 및 수변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녹색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친환경적인 생태복원 사업임을 홍보했다. 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준설,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한 홍수 조절용량 확보, 16개 명품 보(洑) 건설계획 등을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12월 15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해외홍보전문관, 심명필 추진본부장, 제해치 공보기획팀장.

해외 환경 전문기자 참석…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활동도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에서 온 환경 전문기자들이 참석했다. 캐나다의 환경 전문 프리랜서 기자인 펠릭스 본 가이어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의 한국의 현 위치"에 대해 질문했다. 〈USA투데이〉 등에 기고하는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에릭 레이맨은 기자회견 직후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코펜하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심명필 추진본부장, 김승겸 해외홍보전문관, 제해치 공보기획팀장을 파견했다. 추진본부는 벨라센터 내에 설치된 한국 홍보 부스에서 4대강 살리기 동영상을 상영하고, 영문 브로슈어 〈Restoration for Major Rivers〉와 DVD를 배포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12월 14일 벨라센터에서 열린 세계적인 물 관련 국제컨설팅 연구기관인 DHI(Danish Hydraulic Institute)가 주최한 '수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다. 심 본부장은 수자원 관련 학자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세계 각국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물 문제 연구에 관한 토론에 참석했다.

한편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 활동도 펼쳐졌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해외마케팅 과장 등 4명을 파견해 당사국총회 참관객들에게 박람회를 홍보하는 영문 브로슈어 〈The Living Ocean〉을 나눠주고 홍보 동영상을 상영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기후변화 대응 열혈청년 5인 코펜하겐에 가다

"역사적 순간에 가슴 벅차"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2009년 기후변화 대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입상자인 5명의 젊은이가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인의 시각을 체험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돌아왔다.

장철호, 이시형, 구자열, 홍은경, 심홍석 씨와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김판조 씨(왼쪽부터)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장인 벨라센터 안 에너지관리공단 홍보 부스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참관인 등록증을 목에 걸고 각국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총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중요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종대 대학원 지구환경과학과에서 기후변화를 전공하고 있는 이시형(28) 씨와 아주대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 석사 4기 과정에 있는 심홍석(29) 씨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다는 설렘에 기나긴 등록 절차를 거치고 깐깐한 검색대를 통과하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씨와 같은 연구실에 있는 구자열(28·아주대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 석사 4기) 씨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기후변화 관련 연구결과를 근거로 기술 및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학술연구기관, 자국 이익을 대변하는 각국 정부 협상단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모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한 가지 주제 아래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진지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 논문 공모전 부상으로 참관 기회 획득

이시형, 심홍석, 구자열, 장철호(28·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홍은경(32·알래스카주립대 기후변화산학협동 박사과정) 씨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인의 노력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2009년 기후변화 대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수상에 대한 부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관 기회를 얻었다.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이들 5명의 대학원생은 전 세계 1백93개국에서 모인 1만5천명이 넘는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청년들로서, 행사 기간 동안 협상장과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져온 주제들에 대해 식견을 넓히는 한편 기후변화 회의장인 벨라센터 안 에너지관리공단 홍보 부스에서 전 세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시형 씨는 "전 세계에서 온, 기후변화 문제를 걱정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사업, 탄소 중립 프로그램, 탄소 캐시백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소개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심홍석 씨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알리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자랑스러웠다"며 "서 있는 시간이 많아 힘들기도 했지만 방문객들에게 퀴즈를 내고 기념품을 나눠주면서 부스 홍보를 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가 전공과 관련이 깊고 평소 관심이 많은 분야인 만큼 보고 느낀 것이 적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흔히 자연은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생능력을 북돋우는 동시에 인류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구자열 씨는 "일본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자료를 얻었고,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무료견학 프로그램인 '해상풍력발전 현장 견학'이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국제 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큰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홍석 씨도 "국제회의는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지만 선진국의 목소리가 큰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우리나라가 좀 더 분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 부과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거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활발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홍보하는 동안 한국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초라한 관심을 받은 것을 느끼며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내내 코펜하겐 곳곳에는 HOPE(희망)와 COPENHAGEN(코펜하겐)을 합친 'Welcome to HOPENHAGEN'이라는 홍보 문구가 내걸렸다. 구자열 씨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가 단지 희망만 주는 게 아니라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형 씨도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향후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이제는 이런 국제회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 에너지 감축 목표를 수립해 발표하는 등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의식은 높아졌지만 전 세계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재정 지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희망만 주는 게 아닌 결실 맺는 회의가 되길"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추억은 방울방울〉을 보면 '저 산과 들 그리고 시냇물도 원래부터 지금의 자리에 있었던 자연은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고 가꾸고 물길을 낸 결과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흔히 자연은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 씨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생능력을 북돋우는 동시에 인류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매년 5천억 달러에 달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천이므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심홍석 씨도 "책에서만 읽었던 기후변화 협상을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며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기후변화에 대한 퀴즈를 내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부스 홍보를 했다.

녹색성장 일자리 147만 개 창출

녹색성장은 환경친화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일상생활과 소비에서도 녹색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정경택 기자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풍력발전은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매우 크다. 사진은 영덕풍력발전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지난 1백 년(1906~2005년) 동안 섭씨 0.74도 높아졌고 금세기 말에는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와 함께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인 2006년 스턴 보고서는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구온난화 대책 비용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20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구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백 년동안(1912~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7도 상승해 세계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그 결과 겨울철 지속 기간은 22~49일 줄었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전 세계는 에너지원의 85퍼센트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자원 고갈을 가속화하고 온실가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석유 43.6퍼센트, 석탄 24.3퍼센트, 액화천연가스(LNG) 13.7퍼센트 등 화석연료 의존도는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 에너지의 97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변동 등 외부 영향에 휘둘리기 쉽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도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녹색기술은 일자리 창출하는 새 국가 발전 패러다임"

우리나라는 중화학, 전자 등을 주력산업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3년 GDP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13위로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이야말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은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유형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구조를 바꾸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녹색혁명이 필요하다. 저탄소형 국토 개발이 이뤄지고 생태공간이 늘어나야 한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체제와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시장이 조성돼야 한다.

에너지 자립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 5개년 계획 마련

녹색성장은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퍼센트(배출 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계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탄소정보공개지표를 개발해 제품·서비스, 가정·건물 등 부문별 목표를 관리하는 한편, 재활용을 늘리고 숲과 습지를 가꿈으로써 탄소 순환과 흡수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2퍼센트 수준인 에너지 자립도를 2020년 50퍼센트, 2050년에는 1백 퍼센트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혁신하고 부문별 에너지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그리고 석유가스 자주개발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6대 중점 녹색기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고효율 태양전지, 해양 바이오 연료, 그린 PC와 TV 등 녹색기술 개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퍼센트, 녹색기술 투자 비중을 25퍼센트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7퍼센트에서 2020년 6.08퍼센트, 2050년 30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신안태양광발전소.

철강, 섬유,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또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재활용 제품의 유통구조를 선진화해 자원 순환비율을 2020년 17.6퍼센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산학연이 협력해 녹색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산업단지를 현재 5개에서 2020년 20개로 확대한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탄소시장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 개편,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과 산업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자격 인증제를 실시하고 녹색 사회적 기업도 육성한다.

녹색성장은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1백7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평균 GDP의 약 2퍼센트 수준의 재정투자로, 유엔의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이 권고한 GDP 1퍼센트 수준보다 높은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김동진 사무관은 "녹색성장을 통해 2013년까지 1백82조~2백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백18만~1백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생산유발 효과는 연평균 36조3천원에서 41조2천억원으로 올해 추정 GDP의 3.5~4퍼센트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는 연평균 23만6천~29만4천명으로 올해 1분기 전체 실업자의 26~32.4퍼센트가 고용되는 셈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녹색 호랑이, 그린 IT로 뛴다

지난 8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아힘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녹색 호랑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에서 친환경 정보기술인 '그린 IT'는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 기술이다.

정경택 기자

서울 대치동 KT&G 서울사옥(코스모타워)에서 한 직원이 '행선층 예약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엘리베이터 소모 에너지를 25퍼센트 절감했다.

#1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월 국내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3백만 대를 넘어서고, 고속도로 이용 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률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올 한 해 동안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2만4천 톤 감소하고, 향후 10년간 1조5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2 KT는 지난해 5월 완공한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인 서울 목동 KT 인터넷 컴퓨팅센터(ICC)에 직류 서버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그린 IT 기술을 적용해 20퍼센트 이상의 전력 소비량을 절감했다. KT는 2013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퍼센트 감축하는 'KT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한 사례들이다. 이처럼 환경보호에 앞장서면서도 경제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그린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 IT는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기술(IT)의 합성어. 기후변화와 고유가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고효율 제품과 기술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IT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는 지난 10월 '2010년을 이끌 10대 IT 전략 기술' 중 하나로 그린 IT를 지목했다. 가트너는 "IT산업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퍼센트를 차지한다. 하지만 IT는 나머지 98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린 IT"라고 강조했다.

저탄소 경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기후 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2020' 보고서도 그린 I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T 솔루션을 잘 활용할 경우 2020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5백19억 톤)의 15퍼센트인 78억2천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추산했다.

그린 IT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진 각국 및 글로벌 기업은 그린 IT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린 IT를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국가 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IT를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글로벌 기업도 그린 IT 전략 적극 추진

영국 역시 정부가 선도적으로 그린 IT 비전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정부 부처의 IT 전체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 휴렛패커드, 선마이크로시스템즈, 후지쯔 등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핵심 사업으로 친환경 데이터 솔루션, 원격근무 시스템, 고효율 제품 개발 등 그린 IT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그린 IT 국가전략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

고 있다. 지난 11월 말에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가 '그린IT협의체'(대표 이석채 KT 회장)를 발족시켰다. 정부 부처와 IT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IT 녹색성장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여기에는 IT 관련 주요 협회와 KT, SKT 등 통신·전력사업자, NHN 등 인터넷·어플리케이션 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과 학회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4개 기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녹색위는 이에 앞서 10월 말 '그린 IT 국가 전략'의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각 정부 부처별로 설정한 그린 IT 계획을 통합 조정해 중·단기 국가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한국 '그린 IT 전략' 9대 추진 과제 수립

그린 IT 국가 전략에는 9대 추진 과제, 37개 중분류 과제, 1백9개 세부 과제가 설정돼 있다. 이 중 9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월드 베스트 그린 IT 제품 개발 및 수출 전략화 △IT서비스 그린화 촉진 △10배 빠른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IT를 통한 저탄소 업무환경 구축 △IT기반 그린 생활혁명 △IT융합 제조업 그린화 △스마트 녹색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지능형 실시간 환경감시 및 재난 조기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이 과제를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5개 정부 부처가 투자하는 예산은 모두 4조8천9백억원이다.

"IT산업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퍼센트를 차지한다. 하지만 IT는 나머지 98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린 IT다."

국내 기업들의 그린 IT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삼성SDS는 현장 중심 업무 시스템인 '오픈 플레이스'를 개발해 원격근무와 화상회의를 지원하고,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에 건물 관리 지능화 시스템을 적용해 유지비를 절감했다. SKT는 공용기지국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무선국 표준 모델을 개발해 기지국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KT&G의 서울 대치동 서울사옥(코스모타워)은 2008년 1월 엘리베이터에 '행선층 예약 시스템'을 설치했다. 홍보실 하소영 차장은 "최근접 위치의 승강기가 호출됨에 따라 운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평균 대기시간 및 승차시간을 단축해 에너지를 약 25퍼센트 절감했다"고 말한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2007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1백54개국 중 세계 2위의 정보통신 발전 지수를 가진 나라로 꼽혔다. 녹색위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IT 활용 능력도 뛰어나 그린 IT 추진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IT 부문의 전력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국내 기업의 그린 IT 전략 수준도 유럽연합(EU) 평균(35퍼센트)보다 낮은 27퍼센트 수준이다. 따라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녹색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이 그린 IT 전략의 핵심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동아DB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이용 차로.

알쏭달쏭 그린 IT 용어

그린 IDC(Internet Data Center) IDC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서버 호스팅을 제공해주는 곳으로, 그린 IDC는 전력 소비가 많은 서버 및 센터에 저전력 설비 및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클라우딩 컴퓨팅(Clouding Computing)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IT 자원(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상 서버, 스토리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방식보다 유연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전력 수요자와 공급자를 잇는 전력망에 인공지능 정보망을 결합한 지능형 전력망이다.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 건물,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소 등 산업 전반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IPTV(Internet Protocol TV)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에서 TV, 주문형 비디오(VoD),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근무, 영상회의 사무실 없는 근무 체제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종이 없는 사무실 실현 등으로 202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5백19억 톤 중 4억6천만 톤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스마트 2020' 보고서는 예측했다.

u-헬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체제로 2012년 2조원대의 성장이 예측된다. 정부는 IPTV 헬스용 셋톱박스를 기반으로 한 u-헬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규제 선진국형으로 바꾼다

짓는 건 편하게, 배출 감시는 철저히

입지제한, 이중·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환경규제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감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종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환경규제 합리화는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지구촌 모든 국가의 공동 과제가 됐다. 영국 기상청 산하 기후예측기관인 하들리센터는 지난 9월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지구의 기온은 2050년대 중반까지 섭씨 4도가량 오를 것이며,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의 46퍼센트를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과 유럽연합(EU) 등 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기준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내용을 따르고 있다. 2005년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1백74개국이 이에 동의해 비준했다.

환경규제 개선은 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11만 톤의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전남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에 따르면 의무감축국인 선진 38개국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퍼센트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非)의무감축국인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발적으로 정한 감축 목표를 이행하면 된다.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 등 활발히 진행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난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이는 결코 녹록지 않은 목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99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태가 2013년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남은 3년 동안 정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 배출권거래제(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환경규제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도지역별로 오염 발생량 기준으로 시설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오염 발생량 규모가 대기 10톤 이상, 수질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처리해도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 같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대기 10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 입주만 허용하는 등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오염물질 규모에 따른 사전 입지제한으로 배출 저감에 힘쓰는 시설들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녹색성장 등과 연계해 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폴크(Polk) 발전소가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석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합리적인 규제 덕분이다.

녹색 신기술 개발 · 이중규제 정비 등 노력 기울여야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대한 중복 규제 및 관리도 문제다. 대기총량관리의 경우 대상 사업장의 일부 배출시설에는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다른 시설에는 일반 배출농도 기준을 적용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총량관리제가 대기 총량 할당량에 경제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지역별, 오염물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질 총량관리의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목표 수질을 사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개선 노력으로 개발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다른 지자체에 이전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 성공 사례 홍보 등이 미흡해 지역 간 배출권 교환 사례가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 로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이는 결코 녹록지 않은 목표다. 남은 3년 동안 정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기 총량 및 배출농도 규제가 있음에도 별도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중복규제도 비용 증가와 기술발달 저해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각종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 노력을 유도하려면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이중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중시하는 관리 방식으로 규제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기 및 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배출 성과 기준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인 손병용 사무관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환경규제 선진화가 절실하다" 며 "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크게 줄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해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영국은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6퍼센트, 2050년에는 80퍼센트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각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공사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정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되사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또 각 주택의 에너지 효율 순위를 6단계의 별표로 매겨 주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3퍼센트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린빌딩 인증프로그램(LEED)' 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LEED는 지속가능한 개발, 물 절약, 에너지 효율, 자재 및 자원 선택, 실내 환경의 질 등 5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수준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법(Erneuerbaren Energien Gesetz)의 제정을 통해 풍력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기존 전력공사가 구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풍력발전기 설치용으로 토지의 용도변경도 허용한다. 이 덕에 북해나 동해 연안과 내륙지역에 주로 자리했던 풍력발전소 설치가 수월해져 독일의 풍력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2005년 개설된 범유럽 배출권 거래시장인 'EU ETS' 에 참여하고 있다. EU ETS는 1단계(2005~2007년)와 2단계(2008~2012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국가별 배출량 목표를 부여해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6개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만을 거래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회원국의 요청으로 아산화질소까지 일부 편입되고 있으며 향후 거래 대상 가스와 참여 업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0퍼센트가 EU ETS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만1천여 개의 배출업체(전력, 석유, 철강, 화학, 시멘트, 유리, 제지 등)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화석연료 가격을 상승시켜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동아DB
독일 기업 지멘스가 덴마크 뉘스테드 해상에 설치한 풍력발전소 단지.

동아DB

기업 자발적 참여토록 오염 줄이면 인센티브

내년부터 법 개정을 시작으로 환경규제 선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환경규제를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오염물질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머잖아 산업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면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는 무관하게 규모가 큰 시설이면 무조건 입지를 제한하는 현행 환경규제가 오염물질 관리 성과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12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와 수질 분야의 환경규제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 따른 최종 성과 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총량과 시설별 배출 허용 기준을 규제하고 시설입지, 연료 사용, 관리방법 등 투입·과정에서 또다시 규제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현행 방식의 문제가 해소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줄이기에 힘쓴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분야

총량관리제 실시하면 입지제한 규제 완화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 발생량을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를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 배출량 10톤 이상의 시설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울산, 여수 같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단, 시설입지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사업장의 총량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시 배출 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를 부착한 시설에는 규제시설의 관리 의무와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개선해 사소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완화한다. Clean SYS는 1~3종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염산, 질산, 이산화탄소, 불화수소) 배출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자동측정기기로, 2009년 10월 현재 전국 5백12개 사업장(1천3백30개 굴뚝)에 설치돼 있다.

고체연료 등 특정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지침을 마련해 시달함으로써 지자체가 현행 연료 변경 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발열량을 가진 액체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고체연료는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의 70퍼센트를 줄였을 때 최대 기본 부과금 면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배출 저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저감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역부과금제'도 도입된다. 역부과금제는 기업의 자율적인 배출 저감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기 총량관리제도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거 5년 중 최고 가동률을 반영하는 현행 제도를 향후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해 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발전소 등 초대형 사업장은 지역 배출허용 총량에서 제외해 별도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기와 수질 분야의 환경규제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에 따른 최종 성과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중첩규제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현행 방식의 문제가 해소된다. 아울러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사용 총량의 20퍼센트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염규봉 사무관은 "환경규제 선진화는 내년부터 법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의지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질분야

수질자동측정기 달면 인센티브 추가 부여

수질 분야의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5종(일일 50톤) 미만 공장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모가 그 이상인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표준 배출량에 비해 같거나 줄어든 건축물에는 용도변경과 개축이 허용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경우에는 기본 배출 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수질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에 지자체들 사이에 개발 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배출권 교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산악지역처럼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삭감 여력 등을 감안해 오염부하량(폐수량×폐수농도)을 할당하기로 했다. 목표 수질도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개선으로 지역사회-기업 윈윈"

폐수의 순환 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폐수 재이용업 등록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수질 오염물질이 같은 공정 내에서 순환하는 경우에는 순환 횟수와 상관없이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용량을 폐수 배출량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는 지역 환경청이나 지자체가 사업자와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환경기술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성과 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계속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염정섭 사무관은 "환경규제 개선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사회와 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준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의 기술투자가 활발해지면 사업장은 배출 저감 효과를 높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얻고, 우리 사회는 좀 더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으로 바뀌는 등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AP

앞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에는 관리 의무와 규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것만 알면 나도 '그린맨'

공동이행체제, 배출권 거래제, 바이오매스, 지구온난화지수….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하지만 딱딱하고 난해해 보인다고 건너뛰지 말자. 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환경용어들을 익혀 '엣지 있는' 환경 전문가가 되자.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으며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방안과 함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명시돼 있다.

- **공동이행체제** (JI. Joint Implementation)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해 주어진 공약사항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선진국(부속서 B국가)이 다른 선진국(부속서 B국가)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선진국과 투자국이 배분하는 것이다.

- **기준 배출량** (Baseline)

당사국의 배출량 추이를 나타낸다. 기준 배출량은 경제성장률, 에너지 사용 증가율,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일정한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공동이행체제(JI),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기준 배출량이 결정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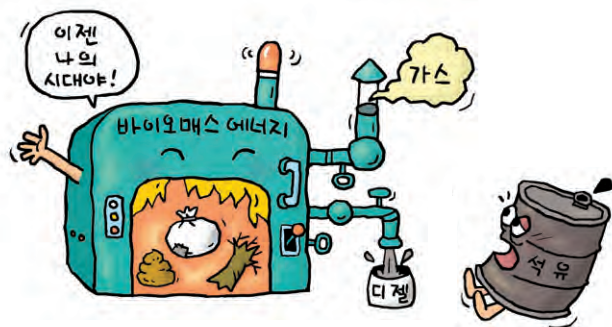
-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상이변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배출권 거래제** (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배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바이오매스** (Biomass)

소각이나 열분해, 발효, 에스테르화를 통해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 쓰레기 등 생물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안적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태워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또다시 자라는 바이오매스의 성장 과정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1년간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다.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컬 에너지라고도 한다.

- **배출 한도량** (Assigned Amount)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 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현행 교토의정서는 '1990년 배출량×감축목표×의무이행 기간(5년)'으로 각국의 배출 한도량을 계산한다.

- **버블** (Bubble)

교토의정서 제4조에서 국가 간 연합을 통해 부속서 I국가들의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한 것을 나타낸다. 유럽연합(EU) 15개국은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교토의정서에서 EU 국가들에 설정한 8퍼센트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다.

- **부속서 I국가** (Annex I)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교토의정서 제2조 a항과 b항에 따라 1990년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지만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 때에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이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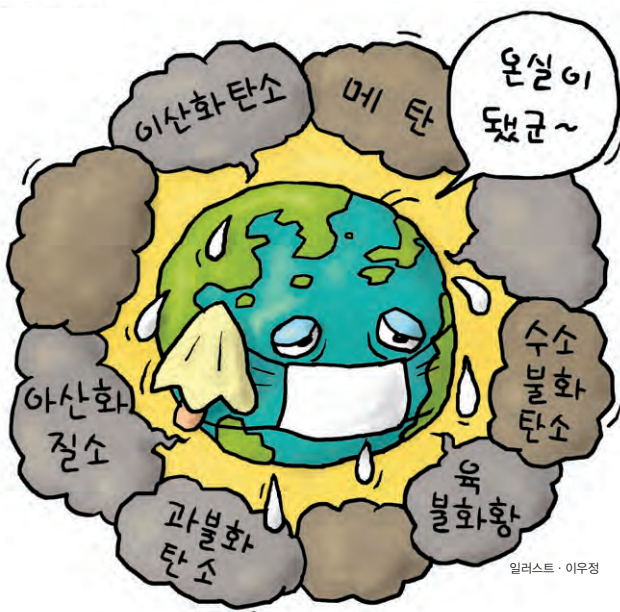
- **부속서 B국가** (Annex B)

  부속서 I국가 중 터키와 벨로루시를 제외한 38개국. 이들 나라에는 교토의정서가 제시하는 첫 의무이행 기간(2008~2012년) 동안 기준 연도에 대한 배출 한도 및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다.

-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산간벽지의 작은 하천이나 폭포수를 이용해 낙차의 원리로 얻은 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8개 분야를 말하며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개 분야는 신에너지라고 한다.

- **온실가스** (GHG. Greenhouse Gas)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_6)을 대표적인 6가지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비(非)메탄휘발성 유기물질(NMVOC) 등이 간접 온실가스로 구분된다.

일러스트 · 이우정

- **지구온난화지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대기 중 농도 변화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체들의 상대적인 복사 흡수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방출 수준을 해석하는 지수. 일정 기간(보통 1백 일) 동안 1킬로그램의 온실가스가 야기하는 적외선 흡수능력(가열효과)과 이산화탄소 1킬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다. 이산화탄소를 1로 볼 때 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백10, 수소불화탄소는 1천3백, 과불화탄소는 7천, 육불화황은 2만3천9백 정도다.

- **자발적 협약** (VA. Voluntary Agreement)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 기업은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이를 이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 이행을 위해 자금,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비규제적인 제도다.

-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을 투자하고, 이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 **탄소순환** (Carbon Cycle)

  지구의 생태학적 물질 순환의 하나. 자연계에서 탄소는 다양한 화합물로 형태를 바꾸며 끊임없이 순환을 되풀이하는데 이처럼 대기, 해양, 육상 생물권 및 암석권을 통해 움직이는 탄소의 흐름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 **화석연료** (Fossil Fuel)

  지각에 파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화하여 만들어진 연료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현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19세기 이후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굴돼 이들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화석연료는 지역에 따라 매장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 면에서 항상 불안정한 것이 단점이다. 또한 공장,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과 온실가스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 대체로 협약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 1995년 3월 제1차 총회가 열렸다. G

글 · 김지영 기자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본격 출범

서민들의 미소를 돌려드립니다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미소금융이 12월 15일 1호점을 개설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앞으로 3백여 개의 지점을 개설해 서민들을 도울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서민들에게 미소를 되돌려줄 '미소금융'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 Smile Microcredit Bank)이 출범한 데 이어 12월 15일 첫 지점인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점이 문을 열고 서민 대출을 시작한 것.

수원지역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인 팔달문시장에 들어선 수원지점 개점식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이순동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사장 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용서 수원 시장은 "미소금융 수원지점 1호점 개점으로 수원지역 저소득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탄력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라는 의미의 미소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 특히 저신용자들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8백만명이 넘는다. 시중은행들은 자산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다.

미소금융재단 조직 체계

정부·민간 뜻 모아 자율적 재원 마련… 첫 지점 수원서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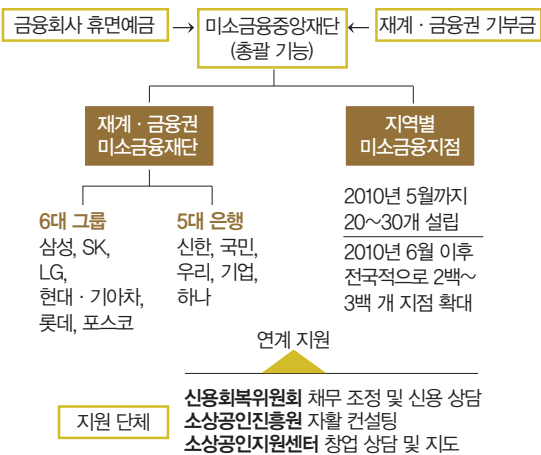
이 때문에 저신용 서민들은 은행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을 찾게 되는데 대출금리가 평균 12퍼센트가 넘는다. 평균 5.61퍼센트인 시중은행의 2배가 넘는 금리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을 찾은 서민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수는 1백89만명, 규모는 16조원을 웃돌았다.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한다. 이는 기업이 자신들이 기부한 돈으로 직접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처럼 꼭 필요한 급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금융 소외계층에게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니 대출을 받는 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라 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기존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마이크로 크레디트와는 다른 한국형 소액대출사업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뜻을 합쳐 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운영하는 민관 혼합방식이기 때문이다. 재원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2조2천55억원을 출연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앞으로 2백~3백 개의 지점을 개설해 서민들을 도울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대출 상담자가 창업 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취업정보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소외계층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1월 6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재단의 사업 범위에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사업자(지역 대표자)에 대한 인력 교육 컨설팅 정보시스템 등 업무 지원, 사업자의 신규 설립 지원, 휴면예금 및 기부금 등 운영재원의 조달 활동 등을 추가했다.

미소금융재단 첫 지점인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점이 12월 15일 문을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 첫 사업장이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 12월 14일 라디오 · 인터넷 연설에서 "이 같은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한다. 이는 기업이 자신들이 기부한 돈으로 직접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국회 계류 · 효율적 채권추심 방안 등 해결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된다면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는 미소금융재단과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점 개점 이외에도 소액대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가 하면 코스콤과는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미소금융 상담자에 대한 컨설팅 및 창업 · 경영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 복지사업자의 업무 교육과 대출심사 관련 정보 지원, 전산시스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미소금융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부 주도로 급하게 추진되면서 대출심사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돼 대출 희망자가 몰려 기금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소금융 대출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적절한 대출심사 기준과 효율적인 채권추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중앙재단 양창엽 기획총괄팀장은 "무조건 퍼주기가 절대 아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사후관리를 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다"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재단을 특례 기부단체로 지정해 기부금 공제한도를 50퍼센트로 늘리려는 정부 방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미소금융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기존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미소금융 특례기부단체 지정'을 전제로 기부약정을 한 상태다.

미소금융으로 인해 또 다른 서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 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 중이거나 변제를 끝낸 영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미소재단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재원이 겹치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추진단 차재호 팀장은 "오히려 기존의 서민 대출은 생계비 대출 위주였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드물었다. 미소금융은 서민 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창업 대출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10년간 2조2055억원 · 25만명에 혜택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무담보 · 무보증 · 저금리로 자활 도와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기업과 은행들이 뜻을 모아 출연한 2조2천55억원이 서민을 위해 사용된다.
미소금융은 앞으로 3백 개 지점을 통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출돼 이들의 창업을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동아DB

미소금융은 창업자금이나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곤란을 겪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인 '미소금융'은 앞으로 10년 동안 2조2천55억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펼쳐나간다. 재원은 6개 대기업이 출연한 기부금 1조원, 5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기부금 2천억원, 휴면예금 7천억원, 18개 금융기관이 모은 기부금 2천5백55억원, 증권 유관기관 기부금 5백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간절히 필요한 서민 2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금융권의 미소금융 사업 참여와 기부금 규모는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6개 대기업은 지난 9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가진 후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 기업별로 기부금을 출연해 각각 미소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 역시 9월 23일 은행장 회의 등을 통해 18개 은행이 2천5백55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국내 은행뿐 아니라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도 동참했다. 특히 5개 시중은행은 이와 별도의 자금을 출연해 은행별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 미소금융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 3곳도 함께 5백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출연해 서민들의 소액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업이 서민들에게 직접 자활의 기회와 기쁨을 주는 일은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 사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기업으로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결정이었다.

전례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소액대출 지원… 기대 높아

미소금융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총괄해서 시행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지점들을 통해 이뤄진다. 지점은 크게 기업 · 금융권 미소금융과 지역별 미소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 · 금융권 미소금융은 6대 기업과 5개 은행이 각자 출연한 기부금으로 각 사의 이름을 건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삼성 3천억원, 현대 · 기아차 2천억원, SK와 LG가 각각 2천억원, 포스코와 롯데가 각각 5백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각각 5백억원, 기업은행 3백억원, 하나은행 2백억원을 출연한다. 이들 기업과 은행이 설립하는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정책 방향을 따라가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은 주로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삼성미소재단은 12월 15일 수원 팔달문시장에 1호점을 낸 데 이어 내년 1월 중으로 전국에 걸쳐 4, 5개의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도 12월 17일 각각 대전, 인천, 서울에 지점을 개설했다. 기업은행도 12월 중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내년 1월 미소금융재단 사업 출범을 목표로 현재 포항 등에서 미소금융재단 사업장이 들어설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 은행들도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단과는 별도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을 지원하는 것 외에 지역마다 지점을 설치해 서민을 도울 예정이다. 휴면예치금 7천억원과 18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2천5백55억원, 증권 유관기관 기부금 5백억원을 합친 1조55억원이 재원이다.

대출자에 맞게 금리·거치기간·상환기간 등 탄력 운영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내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20~30여 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2백~3백 개 수준으로 확대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월 15일 복지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미소금융 지역지점 대표자 11명을 가선정했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가 2명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강원, 제주가 1명씩이다. 인천,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등 7개 지역은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없어 내년 초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선정된 지역지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등을 완료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제주 등에서 미소금융사업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팅, 교육, 정보관리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된다. 지역법인은 독자적으로 직접대출 및 회수, 자활 컨설팅, 상담 업무 등의 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법인은 사회공헌 기여도가 높고 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 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자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의 직원에게는 월 1백만원 이하, 청년 자원봉사자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과 은행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기업·은행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미소금융중앙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대출상품과 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최소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출 예정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들 재단에 사업 모델 제시, 교육훈련 제공,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기법 제공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해 중복·과소 지원 등 운영상 비효율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에서 이뤄지는 대출은 크게 기존의 기관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이번에 새로 생기는 지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 대출과 공동대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대출은 기존 기관에서 계속 수행한다. 새로 만들어진 기업·은행 미소재단 지점과 지역지점에서는 일반·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지원을 주로 수행한다. 이 중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은 국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재단은 앞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내용을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전체 10등급 중 7등급 이하가 기준이지만 초기에는 재단 설립 취지를 살려 9등급 이하에 우선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은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제공된다.

미소금융의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전체 10등급 중 7등급 이하가 기준이다. 대출 심사 때는 신청자의 자활 의지, 자금 활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 능력 등을 주로 점검한다. 금리는 저신용 서민들의 경제사정에 맞게 2~4.5퍼센트 정도로 최대한 낮게 책정했다.

대출 심사 때는 신청자의 자활 의지, 자금 활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 능력 등을 주로 점검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측은 "현장실사를 통해 대출 신청자 상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저신용 서민들의 경제사정에 맞게 2~4.5퍼센트 정도로 최대한 낮게 책정했다. 시중은행의 영세사업자 대출금리가 보통 연 15퍼센트 이상인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또한 대출자의 자금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 및 거치기간은 물론 상환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대출 종류 및 조건

대출 종류	대출 한도 (원)	대출기간		이자율(연)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거치기간
창업(프랜차이즈)자금	5천만	5년 이내	1년 이내	4.5%	무이자 또는 4.5%
일반 창업(임차)자금	5천만	5년 이내	1년 이내	4.5%	무이자 또는 4.5%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1천만	5년 이내	6개월 이내	4.5%	무이자
영세사업자 시설개선자금	1천만	5년 이내	6개월 이내	4.5%	무이자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5백만	5년 이내	6개월 이내	2.0%	무이자
전통시장 상인 대출	5백만	3년 이내	6개월 이내	2.0%	무이자
공동대출	1억	5년 이내	1년 이내	4.5%	무이자 또는 4.5%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1억	5년 이내	1년 이내	4.5%	무이자 또는 4.5%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대출 금액 1천만원 이하는 거치기간 6개월 이내 무이자, 1천만원 이상은 거치기간 1년 이내 연 4.5% 이자 적용

신용등급 낮다고 모두 빌려주진 않아요

자격 요건 확인 필수 대출까지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소득층에게 무보증·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사업이 12월 16일 삼성미소금융재단의 대출 신청 접수로 시작됐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미소금융재단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다.

동아DB

12월 15일 문을 연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지점에는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미소금융제도의 자격 요건을 미리 살펴보고 온다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하의 한파가 휘몰아치던 12월 16일.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삼성미소금융재단' 본점과 지점은 상담 개시 첫날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미소금융재단 중 맨 처음 문을 연 만큼 삼성미소금융재단과 가깝게 사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대구, 안동 등 멀리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다.

이날 본점과 지점이 추산한 방문객 수는 각각 2백50명 정도. 그러나 막상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10퍼센트 안팎이었다. 첫 상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을 때까지 차분히 심사과정에 임해야 한다.

한때 신용불량자였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만우(가명·38) 씨는 이날 삼성미소금융재단 상담자에게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 씨는 2년 전부터 동네에서 헌 옷 리폼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돼 좀 더 큰 가게로 옮기고 싶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그가 사업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 사업을 불리고 싶어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의 출범으로 이 씨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이날 1차 상담에서 자격 요건이 맞아 조만간 2차 상담을 받기로 한 이 씨는 "그동안 반성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며 "대출을 받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해 헌옷 리폼 가게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대출 자격 엄격히 제한

이 씨 외에도 18평짜리 작은 전셋집에서 가내 수공업을 해온 주부 최은미(가명·40) 씨 등 그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2차 상담의 희망이 주어졌다. 삼성미소금융재단 오세규 국장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었지만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분들이 많아 아쉬웠다"며 "특히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격 조건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만 가능하다. 한국신용정보·한국

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빗뷰로 등 3개 신용평가회사 중 한 곳 이상에서 7등급 이하로 판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고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이나 차량 등 각종 재산을 합친 금액이 8천5백만원(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을 넘어도 대출받기가 어렵다. 또 채무가 보유 재산의 50퍼센트를 넘는 과다 채무 보유자도 안 된다.

심사 과정서 자활 의지·계획 타당성 등 꼼꼼히 따져

다음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대출 종류를 선택해 자격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소금융에서 현재 운영하는 대출 종류는 총 5개로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등이다. 이 중에서 사업자 등록 대출인 운영자금이나 시설 개설 자금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대출 한도는 대상자에 따라 5백만~5천만원, 금리는 연 4.5퍼센트 정도다. 대출 원리금은 6개월~1년 거치 후 수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1차 방문 상담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2차 방문 상담 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1차 방문 때는 대출 상담 및 차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하고 2차 방문 때는 근로소득자는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일용직은 근로사실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 밖에도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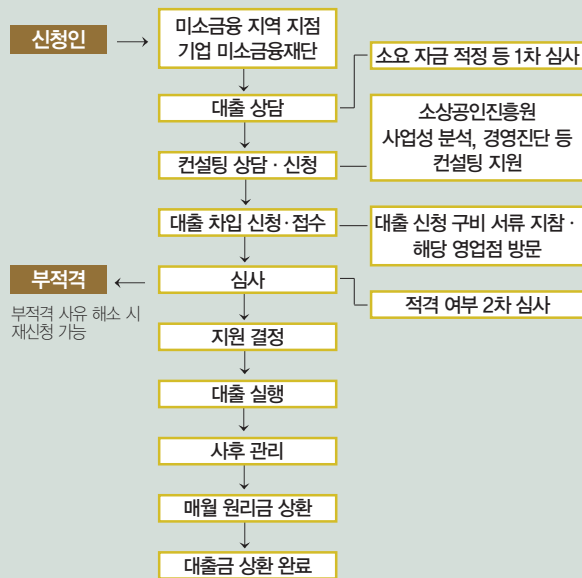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받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대출 상담, 사업 컨설팅, 창업 지원 교육, 현장 실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대출 심사에서는 자활 의지, 자금 활용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상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최소 1, 2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소금융재단은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을 금하고 있다. 다른 미소금융재단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돈이 소액이라면 남은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대출을 받은 후 완제(만기나 중도)하고 신청자격이 되면 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G

글·김민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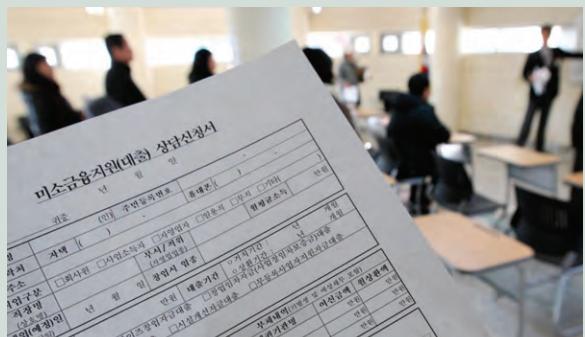
미소금융중앙재단 Tel 1600-3500 smilemicrobank.or.kr

미소금융 세부 절차

미소금융 지원 대상과 부적격 사유

지원 대상자
개인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소득·저신용 계층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갚은 사람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사람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부적격자
개인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사람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대위변제·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 부정적 정보가 등재된 사람
보유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기타 지역 8천5백만원)
채무가 보유 재산의 50퍼센트를 넘는 사람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미소금융재단에서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로 법원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
신용정보전산망에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 등록된 사람

*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동아DB

"하이브리드 자전거로 출퇴근… 여기는 그린존 송파구"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세계는 수많은 시도를 해왔다.
서울 송파구는 그 대안을 자전거에서 찾았다. 언덕 오르기 등 자전거의 약점을 개선한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통해 자동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을 찾는 실험을 시작한 송파구청을 찾았다.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승차 소감은 예상 외로 빠르다는 것이다. 평지를 달릴 때 전기엔진을 가동하면 금세 일반 자전거의 최고속력까지 도달한다. 평소에 가졌던, '자전거는 산책할 때나 슬슬 타는 레저용품'이라는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7월부터 기획해 올해 말부터 실시하는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의 핵심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친환경 열풍과 함께 자전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도로의 자동차들이 줄지 않는 게 문제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레저용이나 동네 산책용으로 이용해 이산화탄소 감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색송파위원회(송파구민과 구청 공무원으로 이뤄진 자치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을 제안했고, 이를 구청 측이 받아들여 예산을 확보해 실시하게 된 것이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이다. 자전거 출퇴근을 할 때 걸림돌은 언덕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청은 대덕특구의 (주)이엔위즈와 손을 잡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개발에 들어갔다.

자가발전 전환 가능… 페달 밟으면 자체 배터리 충전돼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핵심은 자가발전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리젠(Re-Gen) 모터입니다. 일반 전기자전거는 전기 충전 후 언덕길을 전기모터로 오르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거나 언덕길을 급하게 내려올 때는 자체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훨씬 친환경적입니다."(송파구청 환경과 안소영 주임)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핵심은 자가발전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리젠(Re-Gen) 모터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거나 언덕길을 급하게 내려올 때는 자체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해 소모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에코바이크 시스템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송파구청 직원들(왼쪽).

이뿐만 아니라 이 자전거에는 자체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돼 있어 자전거가 어디를 운행했는지가 정확히 데이터로 남는다. 이를 통해 구청은 자전거 이용으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거뒀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더 많은 '자전거 출퇴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새로운 모델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의 근본 취지다.

"지금 우리 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자전거는 30대입니다. 이를 직원 출퇴근과 공무상 출장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가격은 모두 주문 제작이어서 비쌉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당연히 가격도 낮아질 것입니다."(송파구청 환경과 안재승 계장)

송파구청은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을 홍보함과 동시에 그 취지에 맞게 자전거 출퇴근에 동참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구청에서 5킬로미터 이상의 원거리 거주자들이 대상이었다. 모두 15명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간 뒤 신청은 순식간에 선착순 마감됐다. 현재 대기자만 20~30명에 달한다. 안소영 주임은 "경기 성남시에 사는 직원도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전했다.

자전거 가격이 비싼 만큼 관리 및 도난문제 해결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 자전거는 5킬로미터 이상 무단 이동 시 경고음이 울린다. 한번 시작된 경고음은 인증된 카드키(RFID)로 해지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다. 또한 경고음이 울림과 동시에 자전거가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않게 자동으로 잠긴다. 결국 훔쳐 간다고 해도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하다. 또한 GPS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도난을 당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도난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

송파구는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1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일일 사용률 60퍼센트, 일일 이동거리 20킬로미터, 연간 사용일 2백 일 기준). 이는 연간 유류비 1천8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자전거 30대를 시범운행해서 얻는 결과 치고는 대단한 것이다.

처음에 에코바이크 시스템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기도 했다. 우선 자전거 30대를 이용하는 실험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송파구는 자전거 구입 및 제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확보를 위해 1억3천8백만원(국비 5천만원, 구비 8천8백만원)을 투자했다. 다행히 이 실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덕에 에코바이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투자 비용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기 충전 자전거가 과연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전기=이산화탄소'라는 등식은 깨지고 있다는 것이 송파구의 판단이었다. 송파구는 실제로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안소영 주임은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된 편이라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30대로 시작했지만 향후 50대, 1백 대로 늘려가는 게 우리의 계획이다. 또한 구청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송파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충전 거치대를 석촌호수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12톤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도난 방지 시스템 구축도

송파구는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이 자전거 도시로 유명한 경북 상주시나 경남 창원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도시는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도시에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이용한 에코바이크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이산화탄소 감축을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안재승 계장은 "에코바이크 시스템이 확대된다면 국내 자전거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는 국내 자전거산업 확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들의 '녹색 실험'은 계속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유엔환경계획 공모전 대상 건국대 '스쿨오브록(綠)'

"한국의 에코 캠퍼스, 세계에 알리고 오겠습니다"

건국대 'School Of 綠'(스쿨오브록) 팀이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산화탄소 제로, 에코 캠퍼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팀원 김태용 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스를 만들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건국대 동아리 사이프의 '스쿨오브록' 팀은 UNEP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산화탄소 제로 에코 캠퍼스'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건국대학교의 2008년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소비 지출액이 51억원입니다. 여기서 5퍼센트만 줄여도 2천5백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전국 1백80개 대학이 모두 참여한다면 46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1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30년생 잣나무 9천만 그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구민정 사이프 회장)

환경부 후원,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산화탄소 제로 에코 캠퍼스' 공모에 건국대 동아리 '사이프'의 '스쿨오브록'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사이프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대학생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모인 국제 연합 동아리로 '스쿨오브록' 등 환경관련 팀, 농산물 개방 문제를 고민하는 '청.아.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식 마인드를 함양하는 '스텝 포 더 리더' 등의 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공모전에 제출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한 만큼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아낀 부분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시스템(이하 CPVS)'이다.

"에너지를 아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늘 일회성으로 그치고 학생들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생각한 대안이 '인센티브'입니다. 이 CPVS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무처, 학생복지처 등 학교 당국과 32회에 걸쳐 회의를 거듭했습니다."(스쿨오브록 김도언 팀장)

"지속적인 탄소 배출량 절감 운동 만들고 싶었어요"

CPVS 모델은 상호협력(Cooperation), 참여유도(Participation), 가치창출(Value Creation), 지속적 재투자(Sustainable Reinvestment)의 4단계로 이뤄지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학의 높은 탄소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 배출량 절감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들은 또한 학생 5백여 명의 설문조사와 1천4백여 명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학교 측을 설득해나갔다. 그 결과 학교 측과 협상을 통해 월별 적정 탄소 배출량을 설정하고 각 단과대별로 자신들이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각 강의실과 화장실, 단과대 등에 에너지 절약 실천지침을 알리는 스티커와 피켓 등을 부착할 수 있는 비용 8백만원을 지원받는 '꿈만 같은 성과'를 얻었다.

그 결과 건국대의 각 강의실 전원 스위치 옆엔 이들이 제작한 '건국대 학우 강의실 사용수칙 세 가지' '건국대 학우 화장실 사용수칙 세 가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 스티커엔 '냉난방기 사용 후 전원 끄기' '마지막 학생 형광등 소등' '컴퓨터 전원 끄기' '화장실 수도꼭지 확인' '손 닦은 뒤 티슈 사용보다 핸드드라이어 사용(티슈 사용 시 17원이 들지만 핸드드라이어는 0.5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해서 줄인 탄소 배출량은 학생들에게 '에너지 세이브 장학금'이라는 '인센티브'로 돌아온다. 총 탄소 배출량을 학생 수로 나눠 가장 적게 배출한 단과대에 '에너지 세이브 장학금'과 시설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에너지 세이브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줘

"인센티브 효과를 가장 쉽게 확인한 사례는 학생식당에서 진행한 '잔반 없는 일주일 캠페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반을 남기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캔커피 한 개씩을 선물로 줬어요. 캔커피엔 '우리가 버린 김치 국물 1백 밀리리터를 희석하려면 수천 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잔반이 전보다 40퍼센트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스쿨오브록 최혜민 팀원)

스쿨오브록이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은 꾸준한 실천이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대상 공모전이 취업 등에 가산점을 받기 위한 '공모를 위한 공모'에 머무는 것에 비해 스쿨오브록은 팀이 결성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에코 캠퍼스'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결과다.

"공모전에 참가한 이유는 이와 같은 활동이 더욱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공모전에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인정받으면 학교 측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쉬워질 테니까요."(스쿨오브록 강태엽 팀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2004년 사이 한국의 탄소 배출은 1백4퍼센트 증가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국내 대학 캠퍼스 내의 탄소 배출 증가는 국내 전체 증가율보다 약 3배 높다. 이런 상황만 봐도 '에코 캠퍼스' 캠페인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스쿨오브록은 이번 대상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 출범하게 될 학생회와 CPVS를 정책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일주일 동안 잔반을 남기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캔커피 한 개씩을 선물로 줬어요. 캔커피엔 '우리가 버린 김치 국물 1백 밀리리터를 희석하려면 수천 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잔반이 전보다 40퍼센트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쿨오브록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여기엔 팀을 대표해 부동산학과 1학년 김태용 씨가 참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끝나는 12월 19일까지 참가한 김씨는 행사장에 부스를 얻어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선배들이 양보해서 막내 팀원이지만 참가하게 됐다"며 "세계환경전문가들 앞에서 한국 대학생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친환경 캠퍼스 아이디어를 마음껏 알리고 와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씨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참가는 '에코 캠퍼스'를 향한 우리 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이 세계무대로 알리게 된 좋은 기회였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스쿨오브록' 팀은 에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강의실, 화장실 등에 사용수칙을 붙여 학우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환경 지키기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친환경 운전 홍보대사 이세창

"친환경 카레이서? 차를 사랑하는 거죠"

운전도 친환경이 대세다. 친환경 운전은 연료 소모를 적게 해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친환경 운전 홍보대사인 배우 겸 카레이서 이세창 알스타즈 대표에게 생활 속 친환경 운전 실천 방법을 들었다.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 친환경 운전의 시작입니다." 친환경 운전 홍보대사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운전 노하우를 묻자 카레이싱팀 '알스타즈'의 이세창(39) 대표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차를 사랑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운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연료가 불완전 연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차를 사랑한다면 차를 병들게 두지 않겠죠. 차나 사람이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차가 건강해야 매연 배출도 줄게 되죠."

이 대표의 말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세차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세차를 게을리해서 지저분해진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차를 험하게 다룬다는 것. 반면 낡은 차라도 세차를 자주 하는 운전자의 차는 외형뿐 아니라 엔진 등 주요 부품도 연식에 비해 상태가 양호하고 매연도 덜 나온단다.

"저는 기계식 세차 대신 제 손으로 직접 세차를 합니다. 땀 흘리며 차의 구석구석을 닦는 것이 좋아요. 손으로 차를 닦다 보면 차가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퀴를 닦으면서 공기압이 빠졌는지 점검하고, 보닛을 열어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엔진 상태를 살핍니다."

우승컵 빛나는 카레이서지만 도로에 나갈 땐 늘 긴장

또한 자신의 차를 사랑하면 엔진과 브레이크 패드에 무리를 주는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않게 되고, 이는 곧 매연 배출을 억제하는 친환경 운전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차의 수명도 길어지고 저절로 친환경 운전자가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친환경 운전 홍보대사가 된 이후로는 더욱 차에 신경을 쓰

게 됩니다. 제 경우엔 직업상 차에 의상이나 소품, 자동차 관련 장비나 기타 물건들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그러나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엔 차 내부와 트렁크를 신경 써서 정리하고 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차의 중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친환경 운전 습관이거든요."

이 대표는 배우 겸 경력 12년차의 베테랑 카레이서다. 지금은 배우보다 카레이서로서의 이세창이 더 익숙할 정도다. 재미있는 점은 시속 2백 킬로미터 이상 엄청난 속도로 트랙을 도는 카레이싱이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스포츠라는 사실이다. 그런 카레이싱 레이서가 어떻게 친환경 운전 홍보대사를 맡게 된 것일까.

"그러한 의문 자체가 카레이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카레이싱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카레이싱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지구에서 굴러다니는 수억 대 자동차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현격히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들은 F1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경주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3천억원에서 6천억원이 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이 돈은 순전히 자동차 개발과 연구에 투자된다. 경주용 자동차 개발의 핵심은 초고속 운행 때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이다. 또한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게 하는 엔진 개발에도 많은 돈이 투자된다. 이렇게 수천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진 새로운 안전장치, 효율적인 엔진 등 첨단기술은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카레이싱이라는 스포츠가 없다면, 자동차회사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더 안전하고 효율 좋은 엔진(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엔진) 개발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다. 결국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트랙을 질주하는 카레이싱은 '모터스포츠' 이전에 자동차 과학의 경연대회이자 더 나은 자동차 개발을 위한 시험장인 셈이다.

"자동차를 깨끗하게 세차하고 수시로 살펴주는 게 친환경 운전의 첫걸음이죠. 차를 아끼면 엔진과 브레이크 패드에 무리를 주는 급제동은 안 하게 되거든요. 저절로 매연 배출을 억제하는 친환경 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카레이싱에 대한 오해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카레이싱이 위험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적습니다. 위험한 만큼 안전에 대비하기 때문이죠. 저는 경기를 위해 트랙에 나설 때보다 도로에서 일반운전을 할 때가 더 떨려요. 카레이서들은 경기 전 건강검진 등을 철저히 받는 데 반해, 도로의 운전자는 누가 술을 마셨는지, 누가 아픈지 알 수 없잖아요. 게다가 지그재그로 끼어들며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가장 꼴불견인 운전자죠."

이세창 씨는 평소 도로를 달릴 때 과속은 물론 끼어들기도 자제한다.

'도로에 나서는 것이 무섭다'는 말처럼 이 대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소엔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가족과의 나들이에서는 아내인 탤런트 김지연(한때 이 대표와 함께 카레이서로 활약했을 정도로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 씨가 대부분 운전하고, 장시간 운전할 때만 그가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다. 각종 대회에서 챔피언컵을 수차례 들어올린 베스트 카레이서 이세창의 도로운전은 어떨까. 현란하게 도로를 누빌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과속은 물론 웬만해서는 차선조차 바꾸지 않는 소심운전자다. 이 때문에 다른 집과는 반대로 조수석의 아내에게서 잔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카레이싱 감독에 대학교수 직함도 갖고 있는 이 대표. 그의 마지막 꿈은 엉뚱하게도 교장선생님이다.

"예전부터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배우생활을 하면서도 50세가 되면 교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레이싱에 빠지면서 37세에 모터스포츠학과 교수가 됐으니 '조기달성'한 셈이죠. 그래서 설정한 새로운 목표는 50세나 그 후에 모터스포츠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학교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때 친환경 운전도 함께 강의해서 제가 세운 학교가 한국 모터스포츠와 친환경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아시아야구연맹 회장 선출된 강승규 의원

"함께하는 야구 올림픽 채택 위해 힘쓸 것"

강승규 의원이 아시아야구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 의원은 야구장 건립 등 한국 아마야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20년 올림픽에서 야구가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영철 기자

강승규 12월 6일 아시아야구연맹 회장에 선출됐다.

12월 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아시아야구연맹(BFA) 총회에서 강승규 의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야구 명문인 천안 북일고와 고려대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야구광이 됐다는 그는 "사회에 나와서도 늘 기회가 되면 야구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대한야구협회장에 취임한 데 이어 아시아야구연맹 회장까지 맡게 된 강 의원은 벌써부터 한국 아마야구와 아시아 야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구상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다.

아시아야구연맹 회장 취임은 어떤 계기로 된 건가요.

2005년부터 아시아야구연맹을 훌륭하게 이끌어온 이내흔 회장의 임기가 올해로 끝납니다. 이 회장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야구연맹을 이끌어나가는 게 국제 야구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야구계의 중지(衆志)가 지난 7월쯤 모아졌고, 현직 대한야구협회장인 제가 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각국의 한인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야구인들의 노력으로 만장일치의 추대를 받아 아시아야구연맹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야구협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아마추어 야구는 프로야구의 뿌리이자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중고교 야구팀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와 아마가 합심해 야구의 뿌리가 되는 유소년 야구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학원 스포츠를 정상화하여 학생 야구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야구 클럽을 활성화하고 사회인 야구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부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일 생각입니다.

야구가 활성화될 만한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야구의 인기에 비해 시설 인프라 측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야구클럽은 3천 개에 이르고 있으며 동호인 수는 6만5천명에 달합니다. 야구부가 있는 학교도 초등학교 99개, 중학교 79개, 고등학교 53개, 대학교 31개에 이릅니다. 리틀야구단은 1백 개가 넘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정규 구장을 포함해 전국에 94개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야구장 건설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관중석과 정규 규격을 갖춘 야구장이 아닌 학생 야구나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정부 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곳곳에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시아야구연맹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번 회장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Baseball Together(함께하는 야구)'였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야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4개국이 이끌어나가는 등 화합과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야구 취약 국가에 대한 코치 파견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아시아 야구의 수준을 높여 세계 야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구 종목의 올림픽 재진입입니다. 아시아가 주도해 2020년 올림픽에 야구를 재진입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외교력을 발휘해 2008 베이징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35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남원 광한루를 지나는데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춘향전

흥부 마을에서는 흥부네 지붕에 커다란 박이 익어가는 걸 볼 수 있었지요.
흥부전

심청 마을 앞에서는 심 봉사가 외동딸을 보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청전

매안 마을에서는 청암 부인이 며느리를 맞아 혼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최명희의 '혼불'

최 참판 댁에서는 서희가 길상이와 몰래 만나고 있었고요,
박경리의 '토지'

화개장터에서는 남사당패가 왁자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김동리의 '역마'

섬진강에 도착하니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과 물고기를 잡으며 놀고 있었어요.
첨벙
첨벙
섬진강 시인 김용택

그랑께
교무실

한마디로 혀서 자전거 타고 섬진강 문학기행 해쌌느라 수행평가 과제를 못 해부렀다, 이거냐?
국어1
한국문학의 이해

일러스트 · 주형근

그라운드 달군 그때 그 야구 스타들

"나, 자장면 장사합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숱한 스타들이 명멸했다. 야구 유니폼을 입고 폼 잡던 '야구 키드'들도 이제 30, 40대 중년이 됐다. 그들에게 꿈을 주었던 추억의 스타들의 운명은 제각각이다. 지도자로 여전히 그라운드를 지키는 스타들도 있지만 사회인으로 사는 이들이 훨씬 많다.

특유의 오리궁둥이 폼으로 홈런왕과 MVP를 차지하며 그라운드를 풍미했던 김성한(51) 전 KIA 감독은 2004년 지휘봉을 놓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MBC espn해설위원을 거쳐 2008년 여름 광주에서 고급 중식당 '하이난'을 개업했다. 신도심 상무지구의 제법 목 좋은 곳이다. 요리재료와 가구를 직접 중국에서 공수한 6천6백 제곱미터의 대형 업소다. 맛이 일품이고 서비스가 좋다는 반응을 얻어 광주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화요리는 또 한 명의 성공 인생을 만들었다. 전 해태 코치 최해식(42) 씨도 자장면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애당초 광주의 아파트촌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최고루'라는 브랜드는 입소문을 타면서 '브랜드'가 됐다. 광주 이곳저곳에는 '최고루' 간판이 많다. 그가 첫 식당을 개업하고 직접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다녀 음식을 주문한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 최 씨는 그럴 때마다 "나, 자장면 장사합니다"며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웃겨 매출이 급증했다. 김 전 감독이 '고급요리'로 승부를 걸었다면 최 씨는 '중저가형 품목'으로 승부를 건 셈이다.

은퇴 선수들은 한우전문점, 냉면집, 횟집, 주점 등 요식업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얼굴이 알려져 있어 영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삼성 타자 출신으로 야구 해설도 했던 배대웅(55) 씨는 대구에서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데 제법 번창하고 있다. 빙그레 유격수로 뛰었던 허준(39) 씨는 부산에서 대형 뷔페사업을 한다. 부산 시내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란다.

김성한, 최해식 등 요식업 진출 '제2의 인생' 펼쳐

골프계로 진출한 이들도 여럿이다. 야구와 골프는 스윙과 회전, 임팩트 등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원년 OB의 '구레나룻 4번 타자' 김우열(61) 씨는 골프 강사로 변신했다. 최근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여자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스윙 기술을 전수하는 골프 강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골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콧수염 홈런왕' 김봉연(57) 극동대 교수다. 해태의 간판 4번 타자와 코치로 활약하다 극동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돼 골프를 가르쳤다. 해태의 20승 투수로 KIA 수석코치를 역임했던 '왕눈이' 이상윤(49) 씨는

골프장 사장이 돼 중국의 옌타이 애플시티 CC 경영을 했다. 3년간의 중국생활을 정리하고 얼마 전 귀국했다.

'원조 대도' 김일권(53) 전 삼성 주루코치도 한때 골프연습장을 운영했고, 롯데 코치 출신 김용희(54) SBS 해설위원도 부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 해태 외야수 출신 김준환(54) 마지막 쌍방울 감독은 전주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다 지금은 원광대 감독을 맡고 있다. 전 LG 외야수 조현(33) 씨는 한국프로골프(KPGA) 세미프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 LG 투수 이상훈(38)을 가장 이색적인 변신 스타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지금 락 보컬그룹 '왓!'의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LG 20승 투수, 일본 주니치의 명품 좌완 미들맨, 보스턴 레드삭스 입단 등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슈퍼 스타'였다. 그는 "내 볼을 던질 수 없다"며 잔여 연봉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옷을 벗더니 '언더그라운드 로커'로 변신했다. 직접 밴드를 결성해 오랫동안 자신이 소망해온 무대에 올랐다. 청바지에 치렁치렁한 머리로 기타를 연주하고 멋들어지게 노래하는 그의 모습에서 야구인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학교교육 · 야구 병행시켜 은퇴 후 살길 열어줘야"

원년 우승의 일등공신 박철순(53) 전 OB 코치는 최고경영자(CEO) 인생을 살고 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 프랭크 시내트라의 명곡 '마이 웨이(My Way)'가 절로 떠오른다. 치명적인 부상과 좌절, 그리고 재기에 이르는 그의 야구 인생은 드라마틱했다. 야구 인생처럼 암을 이겨내고 스포츠주얼리 전문업체인 알룩스포츠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야구 출신은 아니지만 경북고 출신으로 1970년대 야구계를 풍미했던 남우식(57) 씨는 롯데햄의 후신인 푸르밀 대표이사로 전문경영인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물론 야구계에서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 스타들도 많다. 1983년 한국시리즈에서 전무후무한 4승을 따낸 롯데 에이스 투수 최동원(51) 씨는 한화 2군 감독을 거쳐 지금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OB의 '불곰' 윤동균(60) 씨도 KBO 기술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기운영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 삼성투수 김상엽(39) 씨는 영남대 투수코치로, 홍현우(37) 씨도 광주 동성고 타격코치로 활동하는 등 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이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물론 은퇴 선수가 모두 멋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훨씬 많은 선수들이 사회에서 고전하고, 이호성 선수 사례처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식업종에 진출하지만 경험과 준비 부족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야구인 역시 '엘리트 체육'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구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야구만 하느라 사실상 정규교육에서 제외된다. 인간관계나 사회 물정에 어두워 실패할 공산이 높다.

은퇴 선수 모두가 멋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식업종에 진출하지만 경험과 준비 부족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김성한 전 감독은 "야구선수들이 사회에 나오면 새로운 일을 찾기 어렵다. 앞으로는 학창시절부터 야구와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 강승규 아시아야구연맹회장이 "내년부터 대학리그는 주말에 열린다"고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KBO는 선수들의 은퇴 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년을 불입하고 20년 정도 거치기간을 거쳐 수급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선수들의 평균 활동기간은 8, 9년에 불과하다. 대부분 야구를 그만두면서 중도 해약을 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

그래서인지 야구인들은 10차례 우승 감독에 이어 삼성야구단 사장을 5년째 역임 중인 김응룡(68) 사장을 가장 부러워한다. 그는 야구방망이를 잡은 이후 평생 야구와 떨어지지 않고 사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생활전선에서 악전고투하는 추억의 선수들 마음속에도 항상 푸른 그라운드가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야구는 여전히 그들의 로망이다. G

글 · 이선호(OSEN 체육부장)

영원한 야구인 김응룡 삼성야구단 사장.

'롯데의 에이스'로 기억되는 최동원 한국야구위원회 경기운영위원.

굴곡진 야구인생을 마치고 CEO로 성공한 박철순.

동아DB

“내 안의 장점으로 내가 날 수 있도록”

어려운 형편 딛고 좁은 문 ‘하나高’ 합격 문정선 양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중학교 3년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문정선 양은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여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꿈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방과후 수업이었다.

“방과후 수업은 자유와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 주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동마중학교 3학년 문정선(15) 양은 하나고등학교에 합격했다. 하나고는 내년 3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자립형 사립고다. 하나고의 입학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1단계 종합심사를 거쳐 1박2일 동안 구술면접, 인성면접, 체력검사 등이 실시된 2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평균 경쟁률은 7.4 대 1로 다른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보다 높았다. 문 양은 학원 한 번 다닌 적이 없이 방과후 수업만으로 이처럼 ‘좁은 문’을 통과했다.

문정선 양은 방과후 수업과 자율학습만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나라의 2008년 사교육비 지출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짓눌려 살고 있다. 그러나 문 양은 “사교육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생답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성적에 소홀한 것도 아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문 양의 성적은 전교 2등이다. 댄스대회, 토론대회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방과후 수업이었다.

“방과후 수업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줬죠”

“중학교에서는 학원이 필수라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학원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나친 선행학습,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수업 때문에 망설였어요. 친구 권유로 방과후 수학 수업을 신청했는데, 2학기가 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굴욕으로 느껴졌던 성적이 반 1등으로 올랐고, 제일 어려워하던 수학 점수가 1학기보다 10점 이상 높아져 90점을 넘긴 거예요.”

방과후 수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2, 3학년 때는 방과후 수업에 더욱 충실했다. 방학 때도 방과후 수업을 쉬지 않았다. 동마중 방과후 수업은 학원의 종합반처럼 구성돼 수학뿐 아니라 영어, 국어, 사회, 과학 등 내신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또 영어독해, 원어민 회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위한 고등수학반, 수능영어반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고등학교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도 미리 공부할 수 있었다.

“방과후 수업은 학원보다 진도는 느려도 모르는 것은 정확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학원 수업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을 확실히 잡아주면 심화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문 양은 어머니, 남동생과 세 평짜리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며 살림을 꾸려간다. 한때 문 양은 ‘늘 백점 맞는 아이’라는 학교 아이들의 시샘어린 시선과 가난 때문에 주눅 들고 자신감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

이때 힘이 된 것은 “우리 가문은 너로부터 시작된다”는 어머니의 말과 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책임감이었다. 문 양은 “남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꿈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더 몰두했다고 말했다.

“제가 좋아하는 팝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은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을 발견했어요. 내가 도달할 수 없을 때 나를 끌어올려 주었고, 내가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죠.’ 저에겐 방과후 수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법원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문 양은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영광이 될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끝이 아닌 시작이고, 더 큰 변화는 자신이 믿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연말, 건강 챙기세요

글과 그림 · 최영순

지금 당신이 웃고 있다면 삶의 기회는 와이키키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을 것이다.
– 선박왕 오나시스

고려시대 강진과 개경을 오가던
고려청자 운반선을 재현한 '온누비호'.

KTV 다큐멘터리 〈천년의 침묵, 고려의 귀환〉

800년 전 바닷길, 안방으로 들어온다

한국정책방송 KTV의 특집기획 두 번째 프로그램은 〈천년의 침묵, 고려의 귀환〉이다. 충남 태안군 마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고려 선박 '마도선'을 탐사하는 제1부 〈발굴보고, 마도선의 비밀〉과 고려의 국제적 해상교역로를 추적하는 제2부 〈고려, 동아시아 중심에 서다〉를 12월 30일과 31일 이틀 연속 방송한다.

2009년 4월 충남 태안군 마도 앞바다에서 8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고려 선박 '마도선'이 깨어났다. 그동안 발굴된 난파선처럼 여기서도 수많은 고려자기와 도기가 쏟아져 나왔다. 마도에서 발견된 고려자기는 2003년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저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했다. 그렇다면 이 배도 청자 운반선이었을까? 강진의 가마에서 만들어진 청자를 싣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 침몰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존에 발굴된 청자 운반선들과는 달리 마도선에서는 마치 바닷속에 풍년이 든 것처럼 볍씨, 메밀, 조, 콩 따위의 곡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젓갈, 말린 가오리, 석탄 등이 발굴되면서 마도선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팀은 마도선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사이드스캔소나(Side Scan Sonar·수중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옆쪽을 확인하는 기기), 멀티빔과 같은 최첨단 기기를 동원해 수개월 동안 바닷속을 뒤지고 또 뒤졌다.

고려 무신정권 시대 최충헌 집권 시기의 실존인물로 〈고려사〉에 나오는 대장군 김순영에 관한 죽간(竹簡·대나무에 기록한 화물표)이 발견되면서 탐사는 활기를 띠었다. 목간은 여러 차례 출토된 적이 있지만 죽간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탄소연대측정 결과 이 배는 1200년에서 12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김순영의 기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1208년에 출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 선박 '마도선' 발굴… 조세 나르던 조운선으로 판명

탐사팀은 마도 1구역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마도 1호선이라 이름 짓고, 청자 운반선이 아니라 조운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운선이 발굴된 것은 처음이었다. 조운선이란 조세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고려사〉를 보면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뒤 곡물을 거둬 조창에 모아두었다가 다음 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개경으로 보냈다고 돼 있다.

마도 1호선이 발견된 곳은 옛날부터 물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고려시대는 배가 다니기 어렵다고 난행양(難行洋)으로 불렸고,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60년 동안 1백 척 이상의 배가 좌초되고 사람은 천명 이상, 곡식은 만오천 석 이상 잃었다

고 나온다. 그럼 마도 1호선도 험한 물살에 휩쓸려 가라앉은 것일까? 배에 실려 있던 물품들과 선체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난파하거나 폭풍을 만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마도 1호선의 비밀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마도 1구역에서 동쪽으로 9백 미터 떨어진 마도 2구역. 2009년 7월 마도 2구역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닻돌(배가 정박할 때 닻을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해 매단 돌)이 발견됐다. 닻돌의 크기는 가로 1백72센티미터, 세로 77센티미터나 됐다. 여기서 이런 닻돌이 11개나 발견됐다. 보통 배 한 척당 한두 개의 닻돌을 두기 때문에 침몰한 배가 적어도 5, 6척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장군 김순영 죽간 발견… 난파 원인은 안 밝혀져

고려시대 서해안은 고려뿐 아니라 중국 송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항로이기도 했다. 마도 발굴에서 나온 '강(綱)' 자가 새겨져 있는 송나라 묵서자기는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강은 중국 상인의 성(姓)으로 자신의 물건에 표시를 한 것이다. 당시 북송과 남송은 거란과 여진에 막혀 육로가 끊김으로써 수로를 통해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에 고려가 있었다.

해상무역의 3요소는 상인, 자본, 기술이다. 그중에서도 기술은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 없으면 무역은 일차적인 재료 거래에 한정되기 때문에 생산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교역로를 독점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역상품에서 기술 비중이 높아지고 문화상품이 많아지면 장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당시 동아시아는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집약된 뛰어난 교역물품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양의 지중해처럼 교역로를 독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

고려는 중국에서 청자 기술을 배웠지만 아름다운 비색과 상감기법을 창조해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고려청자는 지금으로 치면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담긴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 여러 종류의 청자가 있지만 고려청자만큼 우아한 청자는 없기 때문이다.

고려청자뿐 아니라 고려의 기술력은 당대 최고였다. 고려와 송나라의 교역이 늘어나자 시인 소동파는 화려한 고려의 물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 백성들의 혈세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고려인의 솜씨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일본은 끊임없이 대장경을 탐냈고, 지금도 대장경을 필사하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

고려는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며 송나라와 함께 동아시아의 항해 시대를 이끌었다. 약탈과 침략으로 붉게 물들었던 지중해와는 달리 동아시아 바다는 평화로웠다.

바다를 육지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육지의 시작으로 보았던 고려는 평화적인 시 루트(Sea Route)를 통해 중국,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했다. 사신을 통한 공무역뿐 아니라 상인을 통한 사무역 역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활기를 띠었다. 매년 겨울철에 열린 팔관회에는 중국, 일본은 물론 멀리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 대거 개경으로 몰려와 서로의 문화 콘텐츠를 교환하는 국제적인 축제를 열기도 했다.

마도선이 발견된 곳은 옛날부터 물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배에 실려 있던 물품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대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아 난파하거나 폭풍을 만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마도선의 비밀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동아시아 바다가 평화의 바다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동양이 이룩해낸 고도의 정신세계이자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마도에서 다시 만난 고려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G

글 · 이혜련 기자

탐사팀이 바지선에서 유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청자상감주전자, 대나무로 만든 화물표라고 할 수 있는 죽간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다. 선체가 인양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KTV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한방 물리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

비용 무서워 망설였다면 이젠 걱정 뚝!

12월부터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내용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했다.

#1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창열(48) 씨는 딸 성희(8)의 손을 잡고 치과에서 나오며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2만원 남짓한 비용으로 성희의 충치 치료비와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치아는 금방 충치가 생겨 치과에서 이미 충치가 생기기 시작한 성희의 치아 홈을 메우라고 권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치아당 많게는 7만원까지 들어 몇십만원의 비용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던 터였다.

#2 무거운 짐을 들기만 하면 생기는 허리 통증으로 며칠 밤을 끙끙 앓는 김수연(50·여) 씨도 요즘엔 멀리 떨어진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거뜬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 할 일이었지만 집 근처 한의원에서 꾸준히 냉습포 치료를 받은 덕분이다. 요즘은 과일과 채소 등으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오는 것도 어렵지 않다.

치과와 한방 분야에 건강보험이 12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 병원 문턱이 한층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를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 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시 치아 홈 메우기 비용은 치아당 약 7천~9천원이며, 치아 홈 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홈 메우기에 사용된 실란트가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 동일 치아에 실란트를 재도포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등을 제외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 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 메우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암환자 본인부담금 5%로 인하… 보험 보장성 높여

또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비용의 1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5퍼센트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 치료, 냉습포(Cold Pack)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천9백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치아 홈 메우기에 1천3백억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에 1천3백억원, 한방 물리치료에 3백억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유영식 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적용 항목이 적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험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특히 병마와 싸우며 막대한 진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온 암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G

글·문상훈 객원기자

이번 방학엔 과학으로 놀자

과학기기·천체관측 등 체험교실 열려

해마다 양질의 방학 프로그램을 선사해온 국립서울과학관이 올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교과학습과 창의교육,
과거와 미래의 과학, 일상의 공간과 우주를 넘나드는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이 마련돼 있다.

'이번 겨울방학, 신뢰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재미까지 듬뿍 줄 수 있는 우리 아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디 없을까. 비용이 저렴하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고….'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자리한 국립서울과학관은 이 같은 학부모의 고민을 풀어주기에 안성맞춤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98년부터 방학마다 운영해온 국립서울과학관 방학 특강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알찬 교육 내용으로 정평을 얻어온 어린이 과학학습 프로그램. 이번 겨울에도 국립서울과학관 자체 교육과정과 외부 전문기관이 주관한 특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동아DB

국립서울과학관은 겨울방학 동안 각종 모형 만들기 등 알차고 저렴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한다.

먼저 '겨울방학 탐구교실'은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별 실습과 과학자들의 발명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캐릭터 달걀' '왜 병에 걸릴까?' '알록달록 색깔나라' 등의 주제로 열리는 초등과학교실(초등학교 1, 2학년)과 '지구를 하나로 만든 에디슨' '곤충을 사랑한 파브르' '지구를 든 아르키메데스' 등 과학자 이야기(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이 있다.

마술에서 우주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가득

'사이언스 매직 체험교실'에서는 색의 마술, 자석의 원리, 신비한 몸속 여행 등 과학이론을 소재로 마술쇼를 시연하고, 쇼에서 활용한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설전시관 전시물을 둘러보고 탐험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놀이와 학습을 연계한 '과학과 놀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로켓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직접 로켓을 만들어볼 수 있는 '우주 체험교실'(매일), 글라이더와 고무 동력기 등 모형 항공기를 제작해 날려보는 '모형 항공기 만들기' 프로그램(주말)도 진행된다. 외부 기관인 '마이크로 코스모스'에서 진행하는 천체망원경 제작 및 천체 관측 프로그램도 주 2회 열린다.

'과학의 문을 열고'에서는 국립서울과학관에 이웃한 창경궁을 방문해 창경궁의 과학기기와 생태를 관찰하고 실험실에서 제작까지 한다. '상설 녹색 과학 체험'에서는 고인쇄 활자의 탁본을 떠보는 독특한 체험이 가능하다.

각종 모형과 기계 조립을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교육하는 '케이넥스 과학교실'과 새소리 센서와 솔라 자동차 등을 이용해 전자부품의 역할을 이해하고 소리와 빛을 내는 키트를 제작해보는 '전자박사 로봇교실'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매일 상시적으로 열리는 '도예 체험교실'에서는 도자기 굽기를, '상설 녹색 과학 체험'에서는 뉴턴 로켓차와 진동 바람개비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국립서울과학관 김상현 사무관은 "기존 프로그램이 단순한 만들기 위주였던 데 비해 올해는 창경궁 방문이나 직업 체험같이 다양한 구성을 꾀했다"며 "어린이 큐레이터교실처럼 부모가 어린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늘린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접수 및 교육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국립서울과학관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게재될 예정이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국립서울과학관 Tel **02-3668-2208** Fax **02-3668-2245** **www.ssm.or.kr**

며느리 · 딸이 아이 키워달라는데…

할머니 육아? 걱정 마세요!

똑똑한 할머니가 똑똑한 손자를 키운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할머니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할머니 역할도 이젠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비 할머니'를 위한 육아교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맞벌이 며느리나 딸 대신 육아를 담당할 '예비 할머니'들이 서울 서초구청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아기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다.

내년 1월 태어날 외손자를 기다리는 '예비 할머니' 양동영(68) 씨. 늦은 첫 손자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애 키운 지가 언젠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했다.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둔 '젊은 할머니' 김순임(55) 씨도 양육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다.

12월초 오후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 2층에서 열린 '예비 할머니 교실'에는 양 씨와 김 씨 할머니 등 40여 명의 할머니들이 참석해 강의 시작 전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자 양육을 떠맡는 할머니들이 늘어나면서 예비 할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교실을 찾은 것.

서초구청, 응급처치·모유 수유 요령 등 자세히 알려줘

첫 시간은 서울대 의대 양영희(소아정신과) 전임의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예방을 위한 양육법 강의가, 둘째 시간에는 이물질 등이 목에 넘어갔을 때의 처치법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원철 응급처치팀장과 함께하는 실습으로 진행됐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던 예비 할머니들은 10킬로그램 가까운 인형을 들고 실습을 하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열혈 할머니들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자식을 키웠어도 오래전이라 아기 양육법을 잊어버렸다"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아이라서 더 부담이 된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겨 자식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이다."

이날 예비 할머니 교실에 참석한 이들의 참석 동기는 각각 달랐지만, 하나라도 놓칠세라 돋보기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구청에서 나눠준 자료를 열심히 보고 강의 내용을 메모하는 데 집중했다.

며느리의 권유로 교육장을 찾았다는 김순임 씨는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자식 키울 때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라면 좀 낫지 않겠느냐"며 "강의를 듣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의 듣고 나니 자신감 생겨요"

서초구 예비 할머니 교실은 지난 11월 18일, 25일 그리고 이날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아기 목욕법, 기침이나 재채기 발생 때의 대처방법, 설사의 형태나 대처법, 기저귀 발진, 피부관리 등이었다.

서초구청 건강관리과 유명득 팀장은 "프로그램 내용을 할머니들이 가장 당황하고 궁금해하는 것들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예비 할머니들은 육아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 주로 경험담에 의존해 아이를 키워온 분들이라 강의 도중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표정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자 양육을 떠맡게 된 할머니들의 말 못할 고민을 풀어줄 해결사가 나타났다. '예비 할머니 교실'이 바로 그것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예방을 위한 양육법, 영아 응급처치 등 할머니들이 가장 당황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 할머니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초구청의 두 번째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 강의에 나선 '아름다운 엄마' 모유클리닉 최희진 대표는 모유 수유의 장점과 중요성, 모유 수유 요령과 문제 대처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보관 등 '방법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모유는 냉장 보관 시 24시간, 냉동 보관하면 3, 4개월 동안 먹일 수 있고 해동을 할 땐 자연해동을 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서초구청은 지난 5월 1기 예비 할머니 강좌를 열었고, 반응이 좋아 이번 2기 강좌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신청자들이 많아 내년에는 3기에 걸쳐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 한 해 서초구를 시작으로 구로구 그리고 분유 제조업체인 일동후디스 등이 예비 할머니 교실을 개최했다. '할머니 육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그동안 강좌마다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서초구 Tel **02-2155-8062 seocho.go.kr**
구로구 Tel **02-8603-2510 guro.go.kr**

대한 적십자사 응급팀장에게 배우는 영아 응급처치

"기도 막혔을 땐 등 두드리기·가슴 압박 하세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8년의 경우 2백50명에 이른다. 이 중 40퍼센트는 영·유아다. 대한적십자사 서원철 응급처치팀장은 "아이 얼굴이 창백해지면 원인을 몰라 해열제를 먹이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미리 응급처치를 배워 베개 등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둘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만 1세 미만 영아의 응급처치법이다.

질식(의식이 있는 경우)

이물질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면 먼저 울 수 있는지, 창백하지 않은지, 기침이나 호흡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아기가 창백하고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물질이 나오거나 힘차게 숨을 쉬고 기침을 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하기'를 반복한다.

▎등 두드리기

1 처치자의 한쪽 팔 위에 아기 머리를 올려 아기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머리를 받쳐 준다.
2 다른 손으로 아기의 머리와 턱을 잡은 다음 얼굴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이때 아이 양 다리는 처치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고정시킨다.
3 아이 몸통을 뒤로 45도 가량 기울여 등의 견갑골 중앙을 5회 세게 두드린다.

▎가슴 압박하기

1 처치자가 한 손으로 아이 뒷머리를 받쳐 등 두드리기와 같이 아이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유지한다.
2 가슴의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 바로 아래를 손가락 2개로 눌러 가슴을 5회 압박한다. 이때 명치를 누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심폐 소생술

아기 어깨를 두드리며 자극을 주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즉시 1339나 119(휴대전화나 인터넷 전화는 지역번호+1339, 119)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이 심폐 소생술을 반복한다.

1 아기를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고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준다.
2 처치자의 입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모두 감싸고 호흡을 불어넣는다. 잠시 떼었다가 다시 불어넣으며 호흡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이때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3 아기의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 바로 아래에 손가락 2개를 올려 눌러준다. 이때 압박하는 위치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가슴 두께의 절반 또는 3분의 1 깊이로 들어가도록 눌렀다 떼었다 반복한다. 힘차고 빠르게 1분에 1백 회 속도로 압박해준다.

詩처럼 그림처럼…
‘하얀 눈숲… 푸른 대숲’
남녘 땅 담양

대나무골 담양은 언제나 상쾌하다. 사시사철 푸른 대숲의 눈맛이 산뜻하다. 울창한 대숲을 할퀴며 부는 바람도 깨끗하다. 하늘을 찌를 듯 늘어선 대숲을 자분자분 걷기만 해도 가슴 저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시름이 삽시간에 씻겨 내리는 듯하다. 대숲 못지않게 가슴 시원한 곳이 담양에는 또 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로 손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바로 그곳이다.

메타세쿼이아는 화석식물이다. 은행나무와 마찬가지로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백악기(1억3천5백만~6천5백만 년 전)에도 존재했던 나무다. 화석으로만 발견됐던 이 나무는 1941년 중국 쓰촨성의 양쯔강 상류 유역에서 수천 그루의 자생지가 발견됨으로써 그 존재가 확인됐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는 가로수나 공원 조경수 등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국도 변에 메타세쿼이아를 처음으로 심었다. 생장속도가 대단히 빠른 속성수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관방제림'도 인기

오늘날 이곳의 메타세쿼이아 나무들도 수령은 30~40년에 불과한데도 몇백 년 된 고목처럼 둥치가 우람하고 키도 크다. 게다가 메타세쿼이아는 침엽수이면서도 낙엽활엽수처럼 새잎이 돋고 낙엽이 지며 한겨울에는 가지만 앙상하다. 그래서 봄의 신록,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나목(裸木) 등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때문에 다른 침엽수들과는 다른 멋을 풍긴다. 특히 눈 내린 겨울날에 가지마다 하얀 눈꽃을 피워 올린 광경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장관이다.

발길 닿는 곳곳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의 아름다운 설경을 카메라에 담는 사진가들.

폭설이 내린 한겨울에도 변함없이 푸른 기상을 뽐내는 죽록원의 대숲 길.

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길은 순창 방면의 24번 국도 변이다. 담양읍 남산리에서 순창군 금과면 경계지점까지 8.5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이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남산리와 금월요 사이의 1.5킬로미터 구간은 아예 우회도로를 만든 다음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다.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은 이 구간은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를 타기에도 좋다. 풍광도 수려해서 이미 영화 〈가을로〉, 〈화려한 휴가〉, 〈연리지〉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주말과 휴일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큰길 하나만 건너면 관방제림의 동쪽 입구에 들어선다. 담양천의 남쪽 둑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 관방제림이다. 제방 위에 1.5킬로미터가량 늘어선 이 숲은 원래 조선 인조 때인 1648년 담양부사 성이성이 담양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처음 조성했다. 철종 때인 1854년에는 연인원 3만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같은 둑을 쌓고 푸조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벚나무 등 7백여 그루의 활엽수를 심었다. 그중 현재까지 남은 것은 4백20여 그루인데, 총 1백11그루가 남은 푸조나무가 가장 많다.

총면적 10만2천9백21제곱미터(3만1천여 평)에 이르는 관방제림은 학술적, 역사적인 가치가 높아서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내에는 1백85그루의 노거수가 자라고 있다. 그 노거수의 대부분은 수령이 3백~4백년에 이르는 고목이다. 내력 깊은 어느 마을의 아름드리 정자나무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은 듯하다. 2004년 산림청이 주최한 '제5회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할 만큼 멋진 숲이다.

시각적으로만 멋있는 게 아니라 여느 정자나무들처럼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주민들에게 마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잠시나마 인적이 뜸한 때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거나 대설이 내린 겨울철뿐이다. 하지만 아름드리 고목들의 둥치와 가지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은 한 줄기 삭풍에도 솜털처럼 가볍게 흩어져버리고 만다.

담양천을 사이에 두고 관방제림과 마주보는 성인산 자락의 오래된 대숲에는 죽록원이 있다. 담양군청이 담양향교 주변의

사유림을 매입해 2004년에 개장한 테마공원이다. 면적 16만5천여 제곱미터(5만 평)인 이 대숲에는 길이 4백40미터의 운수대통 길을 비롯해 죽마고우 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철학자의 길 등 8개의 테마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어느 길로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다른 테마의 길로 넘어가도록 동선이 꾸며져 있다. 하지만 테마별 차이는 별로 느껴지지 않고, 총 2.2킬로미터의 산책로는 막힘이 없다.

8개 테마 산책로 '죽록원'서 대숲 청신한 기운 담아

맹종죽, 왕대, 분죽 등의 대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죽록원에는 정자와 누각, 쉼터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 죽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정자와 누각에 걸터앉으면 대숲의 청신한 기운이 오감으로 느껴진다. 간간이 스쳐가는 대숲 바람, 그 바람결에 서걱거리는 댓잎 소리, 댓잎차를 마주한 듯 진동하는 대나무 향기,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은 죽로차(竹露茶)의 푸른 잎 등이 오롯하게 보고 듣고 느껴진다. 대숲 특유의 눅눅함과 칙칙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시원하고, 비 많은 장마철에도 쾌적하다. 무질서한 야생상태의 대숲을 적당히 다듬은 덕택에 바람도 잘 통하고 눈으로 감상하기에도 좋다.

담양 땅을 밟은 김에 남면 지곡리의 소쇄원(사적 제304호)도 한번 둘러볼 만하다.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소쇄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조성되고 보존된 전통 원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모두 4천6백 제곱미터(1천4백평)쯤 된다. 작은 개울이 흐르고 울창한 대숲에 에워싸인 아담한 원림이다. 계곡물은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작은 폭포와 소를 이룬다. 그 물길 위로는 돌담이 세워져 있고, 두어 개의 다리도 놓여 있다. 건물은 한때 10여 채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제월당, 광풍각, 대봉대만 남아 있다. 그래도 휑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건물과 자연 사이의 공간이 넉넉해서 전체 분위기가 훨씬 자연스럽고 넉넉하다.

소쇄원을 처음 찾은 사람들은 마치 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감상에 젖게 마련이다. 그리 길지 않은 대숲 길과 산책로를 찬찬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노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온 듯한 착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게다가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완벽해서 사시사철 언제 찾아가도 마음이 저절로 흐뭇해진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1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치솟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2 눈 내린 죽록원의 산책로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탐방객들.
3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풍스런 느낌을 주는 소쇄원의 설경.

여행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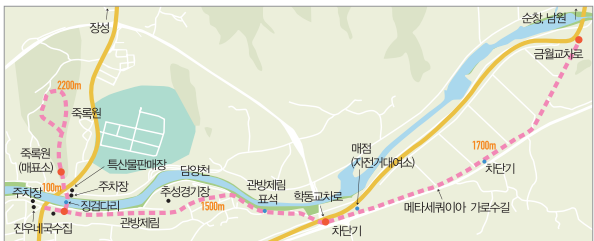
숙박 담양읍내에는 대나무이야기(061-382-1335), 골든리버모텔(061-383-8960), 프라자모텔(061-383-3008) 등의 모텔이 많다. 그리고 담양군 금성면의 금성산성 입구에 자리한 담양리조트(061-380-5000)는 호텔, 온천, 수영장, 수목원, 커피숍, 한식당 등을 두루 갖춘 종합 휴양리조트다.

맛집 죽록원 아래 관성교 부근에 위치한 진우네국수집(061-381-5344)은 멸치국물에 말아주는 잔치국수 하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맛집이다. 메뉴도 잔치국수와 비빔국수뿐이며, '약계란'으로도 불리는 삶은 계란도 국수 못지않게 맛있다. 퍽퍽하지 않고 차지며 간도 적당해서 소금 없이도 술술 넘어간다.

이 밖에도 떡갈비 전문점인 신식당(061-382-9901)과 덕인관(061-381-7881), 대통밥과 죽순요리 전문점인 한상근대통밥집(061-382-1999)과 민속식당(061-381-2515)도 담양의 대표적인 별미집으로 손꼽힌다.

가는 길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나들목 → 담양공고 교차로(직진, 29번 국도) → 담양읍 교차로(좌회전) → 중파 사거리(우회전) → 신남정 사거리(좌회전) → 관성교(건너자마자 우회전) → 담양천 둔치 주차장

공직생활 '좋거나 나쁘거나'

일러스트 · 이우정

명종 대는 조선의 대표적인 폭정(暴政)시대다.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와 그의 아우 윤원형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폭정의 실상을 무마하고 식자층을 회유 내지 위로하기 위함이었는지 명종 재위 때는 거의 매년, 한 해 두 번씩도 과거가 실시됐다. 원래는 3년에 한 번이 정상이다.

명종 16년(1561년) 식년시에서는 이산해(李山海)가 급제했고 명종 17년(1562년) 별시에서는 정철(鄭澈)이, 명종 19년(1564년) 식년시에서는 이이(李珥)가 급제해 관리의 길에 들어선다. 선조 때 당쟁이 시작되면서 동인을 이끌 이산해와 서인을 이끌 이이, 정철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특히 어려서 신동(神童)으로 불린 이산해와 이이의 관직생활을 비교해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이는 장원급제를 하여 처음 정6품 호조좌랑에 임명된다. 이산해는 3년 먼저 급제했지만 장원이 아니었기에 종9품에서 출발했다. 이산해가 정상적인 승진 절차를 거쳤다면 이이를 따라잡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산해는 명문가의 자손인 데다 과묵하면서도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 당대 최고의 실력자 윤원형이 사위 삼으려 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특진을 거듭해 명종 19년 이산해도 정6품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된다. 같은 정6품이지만 '요직'이라는 측면에서 이산해가 앞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당대의 실력자 윤원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확실한 후원자가 없던 이이는 여러 가지로 불리했다. 이이는 명종 20년 정언으로 임명된 이후 이듬해 다시 병조좌랑, 이조좌랑 등 정6품직을 오가다 선조의 즉위를 맞는다. 한편 이산해는 정언을 거쳐 정5품 홍문관 교리(敎理)에 올라 선조의 즉위를 맞는다.

이이와 이산해는 시기만 다를 뿐 선조의 큰 총애를 받았다. 이이는 경학(經學) 쪽으로, 이산해는 행정과 문학 쪽으로 최고를 자부하던 신진 기예였다. 선조의 즉위는 두 사람 모두에게 기회였다.

선조 1년(1568년) 1월 선조는 이이를 홍문관 교리로 임명한다. 이이는 경연에 참석해 선조의 학문 연마를 돕는다. 선조 5년 이이는 홍문관 응교(應敎 · 정4품)로, 이듬해에는 홍문관 직제학(直提學 · 정3품 당하)에 오른 다음 같은 해 말 정3품 당상관인 승지에 임명된다. 이이 본인으로서도 현기증을 느낄 만한 고속승진이다.

이산해의 승진 속도는 더했다. 선조 3년 직제학을 거쳤으니 이이보다 2, 3년 정도 앞서가던 이산해는 선조 4년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 정3품 당상관)에 제수된다. 그리고 이이가 응교로 있던 선조 5년에는 이조참의가 된다. 홍문관이나 사간원이 관찰하는 곳이라면 이조참의는 실무를 다루는 자리다.

살아 영예를 누린 이산해… 후대는 이이를 더 기억해

그러면 누가 먼저 정2품 판서에 오르게 될까? 이산해는 선조 13년(1580년) 10월 20일 형조판서에 특별 임명된다. 한편 선조 7년 병으로 사직했던 이이는 얼마 후 복직해 황해도 관찰사로 잠깐 근무한 후에 선조 11년까지 사직과 복직을 거듭하며 대사간에 머무른다. 이 시기는 동서당쟁이 본격화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산해가 판서에 오르던 선조 13년 9월 이이는 부제학에 머물러 있다. 이듬해 이이는 대사헌을 거쳐 호조판서에 임명된다. 이산해보다 1년 뒤졌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이의 시대'였다. 병조 · 이조판서를 두루 거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조 17년(1584년) 이이는 쉰을 바라보던 나이에 아쉽게 세상을 떠나 정승에 이르지 못한 반면 이산해는 70세를 넘기며 영의정까지 지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산해보다는 이이를 더 기억한다. 생전에 영예를 누린 이산해와 죽어서 불멸의 명예를 누리는 이이, 공직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양자택일 문제다. G

잊혀진 외침 “반드시 돌아가고 싶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비극의 한국戰… 국군 포로 실화 소설

블라인드 47

김성수 지음 / 연인M&B · 10,000원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으로 남과 북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됐다. 전쟁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픔을 남겼다.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만들었다. 그중에는 남한을 위해 싸웠지만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도 있었다.

북한에 국군 포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1997년 양순용, 1998년 장무환 씨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면서 알려졌다. 북한에 남기 싫었지만 강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국군 포로라는 신분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북한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전쟁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얼룩졌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국군 포로로 잡혀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소박한 꿈은 이룰 수 없었다. 북한에서 포로로 억류당하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 그들은 전쟁이 빚어낸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산증인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북한에 정착해 살면서 국군 포로들은 조국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란 희망의 끈을 놓았다. 그러나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간절한 수구초심 때문에 몇몇 국군 포로가 고령의 나이에도 눈물 젖은 두만강을 건너 남한으로 돌아왔다.

내년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다. 아직도 동족상잔의 비극은 상처로 남아 있다. 47년간 북한에서 국군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블라인드 47〉은 6·25전쟁의 아픔과 애한을 절절히 담아냈다.

생환 국군 포로 2호 양순용 씨의 이야기 소설로 담아

소설 〈블라인드 47〉은 이런 국군 포로의 삶을 조명했다. 이 책을 쓴 김성수 씨는 10여 년 전 국군 포로였던 양순용 씨를 만났다. 양 씨에게 국군 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뜨거운 뭔가를 느꼈다.

이후 국군 포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6·25전쟁의 가려진 피해자, 국군 포로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지난 1년 동안 집필 활동에 몰두했다.

책 제목은 국군 포로들의 애끓는 심정을 담아내고 싶어 희망과 절망이 반복됐던 포로 생활을 ‘블라인드’라고 표현했고, 소설 속 주인공이 북한 탈출 때까지 억류당했던 지난 47년을 기억하기 위해 ‘47’을 붙였다.

이 책은 여러 국군 포로들의 단편적인 실화를 모아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했다. 80퍼센트의 논픽션과 20퍼센트의 픽션으로 쓰여 있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배경이 되는 지명, 부대명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전쟁 당시의 절절했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벌써 59년 전 일이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했던 전쟁 때문에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을 기억하며 통일이라는 희망의 끈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 해의 끝자락… 음악과 함께

송년음악회 'Thank you 4 the music'

일시 12월 28일(월)~3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02-529-1923 www.sac.or.kr

카이 김형석 노영심 조원선

동아DB

12월의 끝자락에 음악과 소통하며 희망과 감동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공연이 펼쳐진다. 장르를 떠나 다양한 분야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뮤지션 4명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생큐 포 더 뮤직(Thank you 4 the music)'이 그것이다.

가수 박진영, 김건모, 신승훈 등 숱한 가수들의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 피아노와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노영심, 비음 섞인 목소리가 매력적인 보컬리스트 조원선, 클래식을 전공한 크로스오버 가수 카이(본명 정기열). 이들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콘서트 '생큐 포 더 뮤직'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공연이다.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뮤지션들의 송년 음악 회동'이라는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김형석과 노영심의 피아노 연주와 조원선의 히트곡들은 물론 카이의 팝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다양한 크로스오버 음악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김형석은 자신이 작곡한 드라마 〈올인〉, 〈황태자의 첫사랑〉 등의 주제가를 직접 피아노 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형석과 카이가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돼 있다. 특히 조원선은 지난 3월 발표했던 자신의 솔로앨범 '스왈로(swallow)'의 히트곡과 그룹 '롤러코스터' 시절 히트곡으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정길배 씨는 "서로를 돋보이게 나를 낮추고 서로를 배려해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음악,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로 빚어내는 음악, 함께해서 아름다운 음악, 관객과 뮤지션이 서로 어우러지는 음악 전람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테마전 '동서 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문화'

일시 2010년 9월 26일(일)까지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중앙아시아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00 www.museum.go.kr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대규모 전시다. 선사시대부터 8세기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이 전시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 예술학연구소, 사마르칸트 역사건축예술박물관, 사마르칸트 고고학연구소의 소장품 1백5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실크로드와 고대 한국 문화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겨울축제 '희망의 노래'

일시 12월 31일(목) 오후 10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초대(국립극장 홈페이지 회원 대상)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국립극장의 사계절 축제 중 마지막 축제. 국립극장 전속단체들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진 후 야외 문화광장에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꽃놀이가 열린다. 무료로 제공되는 떡국을 먹으며 이웃들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된다. 국립극장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 축제는 12월 24일까지 event@ntok.go.kr로 이름, 홈페이지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보낸 사람들 중 4백명을 추첨해 1인당 2장의 초대권을 준다.